

'가짜단골'로 신용평가?... 허점 드러난 '플랫폼 금융'

#경기도 부천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A 씨. 그는 요즘 홍보대행사에 의해 배달 앱 허위 리뷰·주문 작업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최근 경쟁 업체의 리뷰·주문 건수가 크게 늘어 A 씨가 계보다 앱상에서 상위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앱에서 가게가 상위에 노출될수록 소비자의 눈에 더 잘 띄고, 실제 주문도 이어진다. '정직함이 무기'라고 생각했던 A 씨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플랫폼 금융 대출 정책을 보고 고민이 더 깊어졌다. 리뷰와 주문 건수에 따라 대출 신용도도 올라간다.

금융위는 1월 언택트 금융 서비스를 위해 '플랫폼 금융'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플랫폼 금융이란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등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는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의 매출, 소비자 평판 등을 가리킨다. 네이버 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과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앱에서의 사용자 리뷰와 주문 건수를 뜻한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보유한 비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와 같은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평가사(CB)의 설립을 허가하고 진입 규제를 낮추는 것이 대표적이다. 비금융 CB사란 개인의 소득, 부채, 재산 등을 따져 신용을 평가했던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해,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라면 이 개인 사업자의 주문 건수, 작성된 리뷰 등으로 신용을 평가

하는 것이다. 비금융 CB사가 자리 잡으면 대출이 힘들었던 플랫폼 사업자에게 대출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문제는 비금융 CB사가 평가할 비금융 정보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조작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 '가구매'를 검색하면 수십 건의 채팅방이 나온다. 채팅방은 판매자와 허위 구매자가 직접 만나는 장소다. 리뷰·주문 건수를 허위로 늘리려는 판매자와 이를 통해 돈을 벌려는 구매자의 공생 관계가 형성된다. 허위 구매자는 건당 약 1000원을 받는다. 방법은 간단하다. 허위 구매자가

가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주문하면 판매자는 그에게 빈 박스만 배송하고 가구매·리뷰에 대한 보상은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자영업자들끼리 리뷰·주문 건수를 조직적으로 왜곡하는 업체들의 얘기를 주고받는다. 해당 업체들은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고, 중복 구매도 없이 실제 유저 아이디로 진행해 조작이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 번에 건수가 늘면 플랫폼이 허위 게시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수일에 걸쳐 리뷰와 주문을 쪼갬다고 덧붙였다. 조작 회사들은 오픈마켓의 경우 즐겨찾기 100건당 3만 원, 프리미엄 구매명 1건당 4500원 수준을 받는다.



▶10면에 계속 문수빈 기자 bean@

확진자 급증하는데 안센마저 혈전 논란 '4차 유행' 문턱, 혼돈의 'K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신규 확진환자가 97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데 더해, 백신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4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731명 증가한 11만14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발생은 714명이다. 신규 확진자 및 국내발생 확진자는 1월 7일(832명) 이후 가장 많다. 수도권에서만 하루 새 5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감염재생산지수가 1.12를 넘었고, 감염경로 조사 중 환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모든 지표의 방향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날씨가 풀리고 야외활동이 늘면서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유입-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은 탓에 미확인 감염원을 중심으로 추가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2

주간(1~14일) 신규 확진자 중 26.9%는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까지 정부가 도입을 완료했거나 확정된 백신은 아스트라네제카와 화이자 백신으로 총 904만4000명분(1808만8000회분)이다. 안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은 추가 도입 예정이다. 이 중 안센 백신은 희귀혈전증 발생을 이유로 미국에서 접종이 중단됐다. 모더나 백신은 '미국 우선 공급'으로 2분기 중 국내 도입이 불투명하다. 백영하 범정부 백신 도입 TF 백신도입총괄팀장은 "상반기 내 백신 공급사별 구체적인 물량과 3분기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각 백신 공급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15일부터 ब्ल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전자 증명서는 위변조가 불가하며,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격리 완화 등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갑질' 아파트 앞 '택배 산성' 14일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와 롯데택배·우체국택배 기사들이 물품을 단지 앞에 내려놓고 있다.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 물품을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배송하고 찾아오시는 입주자 고객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아파트는 이날 1일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고 손수레를 이용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강북구 미아·동대문구 청량리 고밀개발

국토부, 2차 후보지 13곳 발표... 1만2900가구 신축주택 공급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강북구 미아역 역세권,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 강북구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이 선정됐다. 이로써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 21곳을 포함해 총 34곳으로 늘었다. ▶관련기사 3면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저층주거지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저층주거지 1곳)이다. 미아역세권과 용두동 역세권, 수유동



김상식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저층주거지 등이 후보지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양호한 입지에도 저밀 개발로 역세권 기능이 미약하고,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차 후보지에서만 1만2900호의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차 후보지 13곳의

사업 효과 분석 결과 민간 개발보다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높아진다. 공급 가구 수도 민간 개발로 추진할 경우 현행 평균 445가구에서 738가구로 늘어나지만, 공공주택 복합사업 형태로 고밀 개발하면 989가구로 34% 증가한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액이 시세 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 포인트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협의해 7월까지 세부 사업 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확정·고시가 이뤄져야 사업이 본격도에 오른다. 이재영 기자 lly0403@

포스코, 전기차 100만 대 생산 '리튬공장' 짓는다

"2023년 준공, 4만3000t 추출" 포스코가 리튬 상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이차전지소재 생산능력을 더욱 키운다. 포스코는 9일 이사회에 광양 경제자유구역 울촌산업단지 내 연간 4만3000톤 규모의 광석 리튬 추출 공장 투자사업을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리튬 4만3000톤은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포스코가 추진하는 리튬 추출 공장은 호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리튬 광석을 주원료로 해 자체 연구·개발한 생산 공정을 적용해 생산라인을 구성할 예정이다. 공장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이다. 새롭게 짓는 공장은 전

기차 주행거리를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산화리튬을 전용으로 생산하게 된다. 그동안 이차전지업계에서는 탄산리튬을 주원료로 하는 양극재를 주로 생산해왔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이차전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니켈 함유량 80% 이상의 양극재가 개발되고 이에 쓰이는 수산화리튬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리튬 생산을 시작으로 포스코는 이차전지소재 사업을 더욱 강화한다. 우선 리튬과 마찬가지로 양극재 필수 원료인 고순도니켈 생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철강 생산 공정에서 활용해 온 쇳물 생산과 불순물 제거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친환경 고순도 니켈 제련 공정을 개발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잘나가던 대형마트 '눈물의 폐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보복소비' 수혜를 누리며 3월부터 완전한 매출 회복세를 보이는 백화점과 대조적으로 대형마트에 드리는 그늘은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폐점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형마트의 매장 수가 매출로 연결됐지만 소비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오프라인 점포의 효율성 확보가 시급해진 만큼 대형마트 업계로서는 수익성 개선이나 현금 확보를 위해 폐점을 고육지책으로 선택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마트, 슈퍼 등 오프라인 점포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 온 롯데쇼핑은 지난달 말 롯데마트 구리점을 폐점했다. 1999년부터 20년 넘게 운영해온 이 점포는 한때 전국 롯데마트 매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때 '잘나가던' 매장이었다.

구리시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던 롯데마트는 올초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임차료 2배 수준을 요구하자 난색을 표했다. 입찰은 네 차례 유찰됐고 그럴 때마다 임차료가 떨어졌다. 롯데마트는 더 싼 가격을 기대하며 5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사이 경기도와 충남 등에서 식자재 체인점을 운영하는 엘마트가 입찰에 뛰어들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구리점 폐점은 표면적으로는 구리시와

점포 정리 이어가는 대형마트 업계

롯데마트	지난해만 12개 점포 정리... 3월 롯데마트 구리점 폐점
이마트	4월 28일 동광주점, 5월 4일 인천공항점 폐점
홈플러스	대구 스타디움점 연내 영업 종료... 부산 가야점 내년 폐점

롯데, 구리점 20년 만에 문닫기로 홈플러스, 부산 가야점 매각 결정 이마트, 동광주·인천공항점 종료

'온라인'에 밀려 점포 정리 잇따라

롯데마트의 매장 임차 계약이 불발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롯데마트의 임대차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중소형 식자재마트가 발빠르게 치고 들어오면서 롯데마트가 판단 착오로 허를 찔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롯데마트는 구리점 외에도 올해 실적 부진 점포 위주로 추가 폐점을 계획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전체 700여 개 점포의 30%에 해당하는 200여 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 롯데마트는 지난해에만 12개점이 문

을 닫았다.

경쟁사인 이마트와 홈플러스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안산점과 대구점, 대전둔산점, 대전탄방점 등 4개 점포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실시한 홈플러스는 최근 전국 5위권 매장인 부산 가야점 매각을 결정했다. 올해도 점포 정리 작업은 계속된다. 올해 2월 대전탄방점 영업을 종료했고, 대구 스타디움점도 연내 영업 종료에 예정돼 있다. 부산 가야동 점포는 내년 초 영업 종료에 예상된다.

이마트도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점포 정리를 진행 중이다. 이마트는 28일 동광주점에 이어 다음달 4일 인천공항점의 영업을 종료한다. 영업 종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성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마트는 해당 지점에서 일하던 인력을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 역시 최근 수년간 점포 정리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마트는 2017년 서울 장안점을 노브랜드 전문점으로 바꿨고 울산 학성점은 문을 닫았다. 2018년엔 인천 부평점과 대구 시지점, 2019년 일산 덕이점과 서부산점의 영업을 종료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취업자수 늘었지만 힘 못쓰는 '경제허리'

기저효과에 지난달 31.4만명 ↑ ... 30·40대 고용률은 하락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지난해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취업자가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통계청은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9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1만4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9.8%로 0.3% 포인트(P), 경제협력개발기구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7%로 0.3%P 상승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함께 기저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30·40대의 어려움은 계속됐다.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전년 동월보다 오른 가운데, 30대는 74.6%로 0.8%P, 40대는 76.9%로 0.4%P 각각 하락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피

해를 본 산업들의 회복이 더뎠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기업 채용 재개와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효과로 청년층(15~29세)과 60세 이상에선 고용률이 각각 43.3%로 2.3%P, 42.3%로 1.1%P 급등했다.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 흐름이 뚜렷하다. 지난달 실업자는 121만5000명으로 3만6000명 늘고, 실업률은 4.3%로 0.1%P 올랐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0%로 0.1%P 올랐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 단기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일부가 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띤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수험생 인강 듣느라 거리 텅텅 손님 끊긴 상인들 한숨만 가득

르포 사라지는 골목상권

노량진 컵밥 거리

"코로나도 무섭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무서워요. 학생들은 집에서 인터넷 강의 보느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네요. 참 힘들어요."

14일 노량진 컵밥 거리는 명성과 달리 문을 연 컵밥 점포가 거의 없었다. 대로변에 길게 늘어진 노점상들 사이 들쭉날쭉 문은 닫은 가게가 더 많았다. 이날 문을 연 점포는 20여 개 중 6곳 내외. 매대 첩판 위, 수북이 쌓인 베이컨과 김치 고명 뒤로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보던 상인은 오랜만에 손님 들어오자 반색하며 일어난다. 무심한 행인만 보일 뿐, 끼니를 때우러 이곳을 찾는 고시생은 없었다.

노량진 컵밥 거리는 2000년 초반 학원가를 중심으로 노점상이 모여들면서 형성됐다. 컵밥은 일회용 컵(그릇) 속에 밥을 넣고 그 위에 고기, 김치 등 여러 고명을 얹은 덮밥이다. 짧은 시간에 저렴한 가격(3500원)으로 든든하게 식사할 수 있어 수험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미관과 위생, 보행 안전 등의 우려로 동작구는 2015년 노점 상인들과 협의해 거리를 재정비하고 특화 거리로 조성했다.

학원 쉬는 시간마다 컵밥 집 앞에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복잡박박했던 대로변이 지금은 황량하다. 코로나19로 학원 수강 인원이 제한되고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전환하면서 노량진을 찾는 수험생이 줄었다. 여기에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권은 초토화됐다.

컵밥을 팔고 있는 노점상 김모 씨(66)는 "학생들이 학원도 안 가고 인터



손님이 끊겨 한산한 노량진 컵밥거리.

넷 강의로 들으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고, 장사가 안 돼서 집에 간 상인도 많다"며 "우리 집이 그나마 사람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하루 열댓 명은 오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때는 사람들이 저 앞 건물까지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밥장사 30년 중 지금이 가장 힘든 거 같다"며 "평일은 장사가 안 된다고 보면 되고, 그나마 주말에 손님이 조금 있는데 들쭉날쭉 온다"고 귀띔했다.

손님과 접촉 거리가 가까운 노점 특성상 상인들이 느끼는 코로나19 불안감은 더욱 크다. 그러나 생계와 직결된 만큼 티를 낼 순 없다.

분식을 팔고 있는 노점상 박 모 씨는 "무엇보다 무서운 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져서 거리에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푸념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비팀목 플러스) 지원에 대해서는 반가움을 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약 4만 개 노점상을 대상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안 그래도 지원금 신청을 문의했는데 일단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생각지 못했는데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지만 사실 밀린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전했다.

글/사진 윤기쁨 기자 modest12@

THE HYUNDAI SEOUL

SOUND OF THE FUTURE

더현대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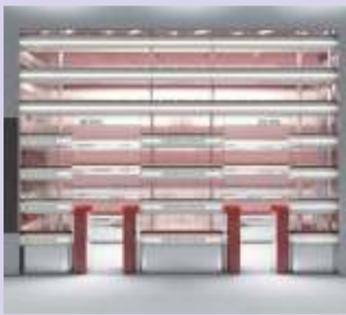
현대백화점이 가장 진화된
미래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의도에 선보입니다



혁신적 공간 설계
대규모 실내 정원 사운즈 포레스트



글로벌 콘텐츠 큐레이션
12미터 높이의 인공폭포 워터플러 가든



미래형 테크놀로지
AWS(아마존웹서비스)기술 기반 무인 매장 연커먼스토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 *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도보 5분
- *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연결
- *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도심 공공주택 사업 '민간 주도' 원하는 주민 동의가 관건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 의사와는 상관없이 후보지를 속속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민간 주도 주택 공급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공공 주도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동대문구와 강북구 13곳을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노후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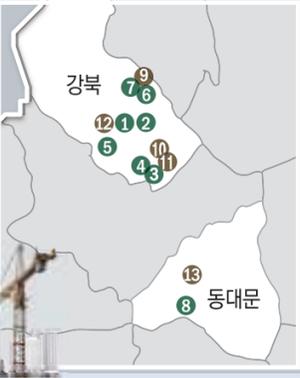
선정된 후보지에서의 사업이 순항하면 1만29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엔 서울 은평구와 도봉구, 영등포구, 금천구에서 총 2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1곳을 공개했다.

후보지는 역세권과 옛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집중돼 있다. 강북구에선 서울지하철 4호선을 따라 미아사거리역과 미아역, 수유역 인근이 모두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4중 역세권인 동대문구 청량리역(서울지하철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분당선) 주변에서도 두 곳이 후보지가 됐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좌초된 곳도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부활했다. 과거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으로 2012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강북구 수유12구역은 이번 사업으로 2700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할 기회를 잡았다. 강북구 미아16구역과 동대문구 용두동 39-104번지에서도 재개발이 무산된 지 5년 만에 사업에 재시동을 걸었다. 시장에서 서울에서 개발 가능한 땅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을

2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지역	위치	노후도	가구수
강북	1 미아역 동측	70%	623
	2 미아역 서측	86%	472
	3 미아사거리역 동측	84%	1,082
	4 미아사거리역 북측	78%	172
	5 삼양사거리역 인근	100%	341
	6 수유역 남측1	86%	510
	7 수유역 남측2	85%	311
동대문	8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76%	3,200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역	위치	노후도	가구수
강북	9 구 수유12구역	72%	2,696
	10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83%	922
	11 구 미아16구역	88%	544
동대문	12 삼양역 북측	89%	588
	13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86%	1,390



'수유12' 2700가구 대단지 변신 '미아16' '용두' 5년 만에 재추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야 '민간개발' 기대 높아 난항 예상 사업후보지 '강북 솔림'도 문제

공급할 땅은 옛 주거정비촉진지구(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 지역만 남았다고 평가한다.

후보지의 윤곽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지만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면 갈 길이 멀다. 후보지 단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거쳐 국토부가 최종 낙점하는 방식으로 선정이 이뤄졌다. 뒤집어 말하면 주민에게 직접 동의를 얻는 과정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정되면 토지주 3분의 2 이상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까다로운 입주권 요건과 정치적 상황은 주민 동의를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든다. 국토부는 2월 4일 이후에 매매된 부동산에 대

해선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할 때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현금청산 보상액이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싼값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2월 4일 이후 산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집을 내줘야 하는 셈이다.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주민들도 이런 현금청산 규정 탓에 매매가 사실상 막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비롯된 부동산 시장 변화도 변수다. 오세훈 시장은 주거정비지구(노후도·주민 동의율 등을 평

가해 일정 점수가 넘어야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 폐지 등 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사업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에 민간 재개발 사업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민간 사업을 뛰어넘는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기 쉽지 않다. 1차 후보지 가운데 일부에선 벌써 독자적인 민간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인 후보지 선정에 반발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차 후

보지의 경우 주민들께서 먼저 나서서 사업 설명회 이전에 이미 동의서를 모아 제출해 주시는 등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구역에선 30~40%대 동의율을 확보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후보지 편중성 문제도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넘어야 할 벽이다. 지금까지 발표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34곳 중 영등포구(4곳)와 금천구(1곳)를 뺀 29곳이 강북지역에 몰려 있다. 강북권 노후 주거지를 정비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 수요를 돌리기엔 역부족이다. 강남권 지자체에선 후보지를 추천하지 않는 등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강남권역에 대해서도 구청하고 후보지 발굴이라든지 접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들이 공공사업에 호응할 만한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발표하고 사업 스킴(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WGC2022 38th WORLD GAS CONFERENCE DAEJU, KOREA 23-27 MAY

푸른에너지로 따뜻한 행복을 만듭니다

한국가스공사

야심차게 내놓은 LH '공공 전세주택' 전셋값 잡고 주거안정 '축매' 될까

임대료 없이 100% 전세 형태 보증금은 시세 60~80% 수준 3~4인 가구 거주 충분한 공간 고품질 자재에 교통 편의성도



정부가 작년 '11·19 전세대책'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공공 전세주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중산층도 보듬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과 관련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공공 전세주택 현장을 14일 공개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LH가 기존에 공급하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료가 있는 반면, 공공 전세주택은 임대료 없이 100%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매달 임대료(월세)를 낼 필요가 없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면서 전세시장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LH가 공개한 공공 전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지상 14층짜

리 신축 오피스텔이다. 1개동에 총 52가구(전용면적 54~83㎡)로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올해 3월 매입해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입주는 6월 예정이다.

이 주택의 보증금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면적과 층수에 따라 1억8000만~2억5000만 원으로 인근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 전셋값과 비교하면 81% 수준이고,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면 60~70% 선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기존 매입형 임대주택보다 거주 공간이 넓은 게 특징이다. 모든 호실은 방 3개, 화장실 2개 이상을 갖췄다. 3~4인 가구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고품질 자재, 빌트인 옵션(시스템에어컨, 인덕션 등) 및 지하주차장도 갖췄다.

교통 편의성도 높였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에 있고, 4호선 범계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가깝다. 이마트 등 쇼핑시설과 의료시설 및 관공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재영 기자 lly0403@

‘文 계약’ 모더나 공급 지연 가능성, 접종 총체적 위기

혈전 논란 여파 수급 불확실성 ↑
11월 ‘집단면역’ 사실상 어려워

모더나, 美 우선 공급계획 밝혀
선계약 EU·日 공급 시 韓 품귀

올 상반기 1200만 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11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백신 수급 불확실성’으로 틀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도입을 확정된 백신은 상반기 접종 계획의 75%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접종 후 희귀 혈전 생성을 이유로 30세 미만에게 접종을 중단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포함돼 있어 이를 대체할 다른 선택지의 백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2분기부터 차례로 공급 예정이던 미국 제약사 얀센 백신도 혈전 생성을 이유로 미국 보건당국에서 접종 중단을 권고하면서 백신 공급이 총체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가 도입을 확정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으로 총 904만4000명분(1808만8000회분)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상반기 도입하려는 백신

물량은 2080만 회분이다. 이는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이라면서 기존에 밝힌 확정 물량(1808만8000회분) 외에 271만2000회분이 추가 도입될 것을 시사했다. 이 추가 물량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이 포함됐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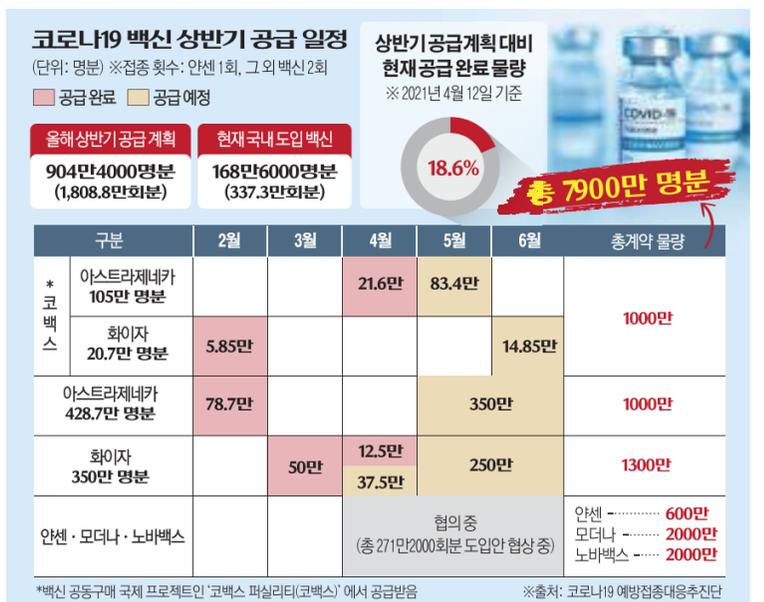
다만 얀센 백신을 제외하면 모두 2회 접종이 원칙으로, 1200만 명에 대한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분기 도입할 백신 물량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영하 백신도입총괄팀장은 “상반기 내 백신 공급사별 구체적인 물량과 3분기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각 백신 공급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얀센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이 2분기부터 차례로 도입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물량은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세 번째로 품목허가를 받은 얀센 백신은 접종 후 혈전 생성 논란으로 미국 미국 식품의약품(FDA)과 질병 통제예방센터(CDC)에서 사용 중단을 권고받았다.

이에 따라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백 팀장은 “얀센 백신의 미국 접종 중단 계획과 관련해 (국내)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며 “질병관리청과 지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일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얀센 백신까지 안전성 논란으로 접종 중단 상황이 발생하자 모더나 백신 공급까지 연쇄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반셀 모더나 CEO와 직접 통화해 모더나 백신 공급량을 2000만 회분에서 두 배 많은 4000만 회분(2000만명 접종)으로 공급받는 선구매 계약을 맺었다. 모더나 백신 공급 시작 시기 역시 2021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겼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일정은 오리무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더나가 미국에서 접종이 중단된 얀센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미국에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이미 선계약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에 백신을 추가로 공급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릴 물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모더나는 자사 홈페이지에 백신 공급 계획을 공개하며 “5월 말까지 미국 정부에 백신 1



억 회분을 공급하고, 7월 말까지 추가로 1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미국 외 지역 공급망은 미국 지역 공급망보다 구축이 1분기 정보 늦었고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은 2분기부터 도입하겠다는 당초 발표와 달리 2000만 회분(1000만 명분)이 3분기까지 공급될 전망이다.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기술 도입계

약(기술 라이선스)에 따라 국내에서 만드는 이 백신은 현재 6월 초도물량을 생산할 예정이지만 글로벌 규제 당국에서 아직 허가 승인은 받지 못했다.

14일 0시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23만9065명이다. 국내 인구(5200만 명) 대비 2.38%로, 전날 신규 접종자는 4만3389명에 그친다. 박미선 기자 only@

특수교사 20대 많아 ‘교직원 조기 집단면역’ 균열

30세 미만 AZ백신 접종서 제외
혈전 우려 10명 중 3명 ‘미동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재개됐으나 희귀혈전증 발생 우려로 만 30세 미만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조기 집단 면역을 기대했던 일부 학교 현장에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0대 인력 비중이 높은 특수학교와 보건교사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책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특수교육·장애아보육 교사, 보건교사 등을 우선 대상으로 AZ 백신 접종이 재개됐다. 하지만 2분기 AZ 접종 대상자 중 30세 미만 약 64만 명은 희귀혈전증 발생 우려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특수학교

교사는 9162명으로 통상 임용고시 합격 뒤 경력 3~5년 이내이다. 20대가 많은 특수 2급 정교사는 3186명(34.7%)이었다.

이은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사 지원 인력의 경우 입대 연령인 20대의 사회복무요원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며 “학교 종사자들의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애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육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AZ

백신의) 혈전 문제가 없었으면 아무래도 집단 면역을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며 “30세 미만이 접종 대상에서 빠지면서 접종 계획에 공백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백신 접종에 동의했던 교사들이 이를 철회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화 특수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희귀혈전증 부작용 발표 뒤) 우려가 커졌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없진 않다”면서도 “아이들을 제일 많이 접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는 특수교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교직원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고민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날 기준 30세 미만을 뺀 특수교육 종사자, 보건교사(보조인력 포함), 어린이집 장애어린이 보육·간호 인력의 접종 동의율은 69.9%다. AZ 백신을 맞은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의 접종 초기 동의율 88%(3월 4일 기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정책본부장은 “등교 확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직원 접종 시기를 일부 상반기로 앞당기도록 방역 당국에 여러 차례 요청했던 교육 당국은 백신 불안 속에서 접종 동의를 끌어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자재의 모든 것 Q-Net

일학습병행 KOREA DUAL PROGRAM

WORLDJOB+ International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HRD Conference

TV WORK NET 한국직업방송

인적자원개발의 즐거운 조립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언제나 든든한 여러분의 HRD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SKT, 통신-투자 투트랙 '기업·주주가치' 높인다

37년 만에 '脫통신' 선언

SK텔레콤(SKTEL)이 14일 인적분할을 공식화했다. 회사를 통신과 비통신으로 쪼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함이다.

SKT는 14일 오후 인적분할 추진을 검토한다고 공식했다. 회사를 통신(MNO) 회사와 투자회사(홀딩스)로 나누는 방안이다. 통신회사 아래에는 SK브로드밴드 등 자회사가 배치되고, 투자회사 아래로 SK하이닉스, ADT캡스, 11번가, T맵모빌리티 등 자회사가 배치된다.

SKT는 통신회사를 '인공지능(AI) & 디지털 인프라(Digital Infra) 컴퍼니(존속회사)'로, 투자회사를 'ICT 투자전문회사(신설회사)'로 구분했다. 존속회사는 유무선 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구독형 마케팅, 데이터센터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신설회사는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투자회사로 성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SKT는 상반기 내 중간지주사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인적분할 추진 관련 의사결정을 확정한다.

SKT는 이번 인적분할로 탈 통신에 박

반도체·AI 등 뉴ICT 사업 확대 연내 중간지주사 설립 인적 분할 "다양한 포트폴리오 기반 제3 창업"

차를 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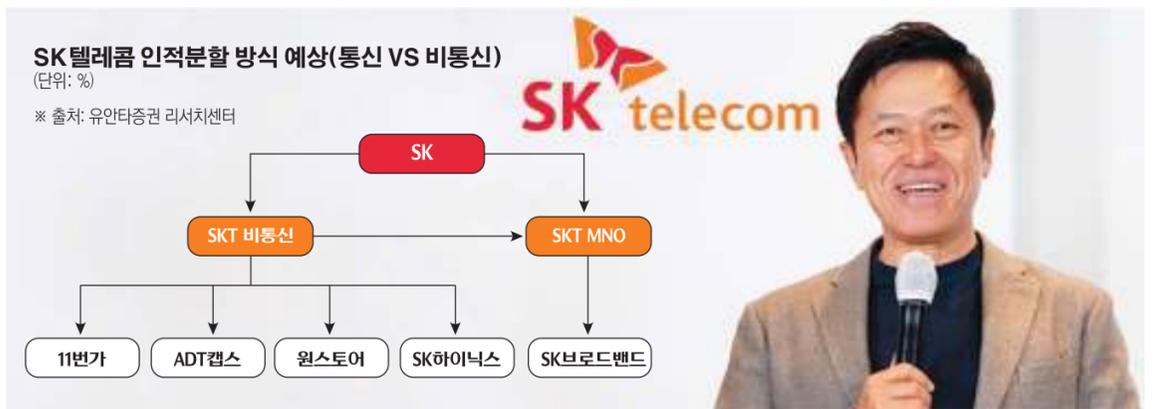
SKT는 "1984년 설립 뒤 30여 년 만에 통신 영역에서 벗어나 AI, 반도체,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뉴 ICT 사업을 본격 확대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다양한 ICT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제3의 창업'을 맞이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1984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로 설립된 것은 '제1의 창업', 1994년 공개입찰로 선정그룹에 인수돼 도약기를 맞이한 것을 '제2의 창업'으로 정의했다.

SKT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설회사와 SK㈜의 합병설에 대해서는 "합병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분할 뒤 중간지주사와 SK그룹 간 합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SKT는 합병설을 부인하면서



박정호 SKT 사장이 14일 온라인 타운홀 행사에서 회사 분할의 취지와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SKT

"인적분할의 취지는 통신과 더불어 반도체, 뉴 ICT 자산을 시장에서 온전히 평가받아 미래 성장을 가속화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신설회사는 국내의 반도체 관련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SKT는 "과거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구 도시바메모리) 투자,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진행했을 때보다 더욱 활발한 투자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100% 경영권 투자만 가능하다. 'ICT 투자전문회사'가 신설되면 'SK㈜→ICT투자전문회사→SK하이닉스' 구조로 이어지는 셈이다. 다만, 앞으로는 'ICT 투자전문회사'가 직접 투자에 나설 수 있어 기존보다 반도체 사업 투자가 수월해질 것으로 SKT는 전망했다.

SKT는 추후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연내 분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

다. 이와 함께 새 회사명도 준비하고 있다.

박정호 SKT 사장은 14일 오후 온라인 타운홀 행사를 열고 이번 분할의 취지와 회사 비전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잘 키워 온 SKT 자산을 온전히 평가받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시점"이라며 "분할 뒤에도 각 회사의 지향점에 따라 계속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LG전자 브라질 타우바테 공장 직원들이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12일(현지시간) 총 파업에 나섰다. 사진제공 브라질 타우바테 노동조합

LG '해외 스마트폰 공장' 딜레마

사업 철수 직원 보상안 이견 브라질 타우바테 노조 파업

'통합 생산기지' 베트남 하이퐁 가전·전장설비 전환 가능성

이달 초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밝힌 LG전자가 스마트폰 해외 생산기지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장을 포함한 사업 매각에 실패하며 부지 청산·폐쇄가 가장 유력한 선택지로 떠올랐지만, 일부 지역에서 현지 직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해외 스마트폰 공장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해외 거점은 베트남 하이퐁과 브라질 타우바테, 중국 칭다오까지 총 세 곳이다.

사업 철수에 따른 움직임이 가장 빠른 곳은 브라질 타우바테다. LG전자는 타우바테 공장에서 스마트폰 뿐 아니라 모니터와 노트북 등 IT 제품을 생산해 왔다. 인력 규모는 1000여 명, 공장 인력은 700명 수준이다.

LG전자는 이달 초 타우바테 공장 근로자들이 속한 해당 지역 금속노동자조합(Sindmetau)과 진행한 면담 과정에서 IT 제품 제조설비를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나우스 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등이 이전 이유다. 사실상 공장 폐쇄다. 마나우스로 IT 제조 설비가 이전된다면 타우바테에는 콜센터와 스마트폰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부 인력만 남게 된다.

문제는 현지 직원들의 반발이다. 타우바테 노조는 12일(현지시간)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고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시위를 시작했다. 현지 협력사 3개 임직원도 이에 동참한 상황이다. 노사 면담에선 사업 철수에 대한 직원 보상안도 제시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뿐 아니라 베트남 하이퐁 등 다른 해외 공장도 사업 철수 과정에서 현지 직원과의 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하이퐁의 경우 전장을 비롯한 다양한분야의 연구·개발(R&D) 전초기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지 정부와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도 약 1000만 대에 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생산 인력도 브라질보다 훨씬 많다.

LG전자는 2014년 당시 흥이엔과 하이퐁에 나누어 있던 생산공장을 통합해 TV·스마트폰과 가전을 아우르는 '하이퐁 캠퍼스'를 구축했다. 여기에 IVI(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생산 설비를 추가하며 주요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이퐁 공장의 경우 통합 생산기지라는 특성상 스마트폰 생산 설비를 가전이나 전장 설비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지 외신과 지방 정부도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베트남 매체 투오이째(Tuoi Tre)는 "하이퐁 공장의 매각과 관련한 내용을 LG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라는 하이퐁시 고위 인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공장은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현지 근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식후 3정으로 지키는 대사 건강

10년 동안 100만* 고객이 선택한 녹차건강기능식품

메타그린 골드



한 번만 경험해보면 꾸준한 습관이 되는 메타그린 골드, 지난 10년 동안 100만* 고객의 선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을 연구하여 설계된 녹차 카테킨이 체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 가볍고 원활한 대사 리듬을 완성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식습관에 메타그린 골드를 더하세요.

*2012년 출시부터 2021년 2월까지 메타그린 누적 구매 고객수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탈뷰티

“자영업 손실보상 재원 재난기금 등 활용 검토”

안도걸 차관 “국가지원만으론 한계”
노란우산공제 활성화·정책보험 강구
월 1회 민관합동 재정운영위 가동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지원에 더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국가재난관리기금 등 형태의 주머니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 중인 재난관리기금을 국가 차원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 중소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이달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발표한 안 차관은 우선 국가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 차관은 “소상공인 공제 형태로 돼서 상호 구조형태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노란우산공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폐업 시 공제제도가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금융위원회가 기업수지보증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민간보험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재원과 관련해 기재부는 이달 중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안 차관은 또 “재정운영전략위원회를 상

시 가동해 재정관리 이슈를 논의하고 토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1급,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안 차관은 “월 1회 열어 재정 관련 이슈는 이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고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재정운영구조와 사회가 급속히 변하고 새로운 재정 수요가 생기는 데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2026년 69.7%로 전망, 다른 나라에 비해 중기적인 부채 증가 속도가 조금 높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이는 국가채무에서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합친 것”이라며 “공공기관마다 중기적인 재정 흐름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는 2022년에 미국이 재정지출을 12.3% 줄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공개한 내년 예산안 재량지출을 보면 전년보다 8.4% 증가로 나온다며 이 내용이 4월에 발표한 IMF 보고서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안 차관은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신경 써야 한다”며 “재정 체력이 소모된 건 사실이니 체력 보강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현대자동차그룹은 14일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목포 방향)에서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E-pit' 개소식을 갖고 1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영운(왼쪽부터) 현대자동차 사장,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이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오늘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기차 초고속 충전

‘현대차 인프라’ 화성 등 12곳 설치
20분 충전으로 300km 이상 주행 가능
초고속 충전기 연내 123기 이상 구축

15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0분 충전으로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보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내 초고속 충전기를 123기 이상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화성휴게소(목포 방향)에서 박진규 산업부 차관과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고속 전기차 충전서비스 운영’ 개소식이 열렸다.

이번 개소식은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에 맞춰 민관의 초고속 충전기 구축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성휴게소에 설치된 초고속 충전기는 20분 충전으로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충전기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18분 이내에



80% 충전 가능’)에 최적화해 설계됐다. 또한, 연중무휴로 24시간 충전할 수 있다. 기존의 전기차도 DC콤보 타입1을 사용하면 같은 설비를 이용해 충전할 수 있다. 다만, 차량별로 수용 가능한 전력량에 따라 충전 속도는 다를 수 있다.

정부는 화성휴게소를 포함해 안성(서울

·부산 방향), 내린천(서울 방향), 군산(서울 방향), 칠곡(부산 방향), 문경(양평 방향), 황성(강릉 방향) 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 각각 6기씩 초고속 충전기 72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15일부터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올해 초고속 충전기를 123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충전사업자에게 구축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는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육성사업’ 대상을 기존 200kW에서 300kW 이상까지 확대한 상태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다음달 중 초고속충전기 보조금 지원 2차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적시·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해 장거리 여행의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면서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초고속 충전기 핵심부품 국산화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차질없이 수행해 국산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연구원과 메탈이 증착된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을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인재 4800명 육성

민·관 공동 인력 양성 프로젝트 추진
석·박사급 10년간 3000명 배출 계획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4800명의 반도체 인력을 공급한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각축전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자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설계지원센터 등 인력양성 인프라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부터 연세대-삼성전자(연간 50명), 고려대-SK하이닉스(연간 30명) 등 채용연계 계약학과 신입생을 선발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2019년 기준 3만 6000명 수준인 반도체 산업 기술인력은 10년 뒤엔 5만 명 이상까지 늘어 야 한다. 매년 1500명이 더 필요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1월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까지 학사급, 석·박사급, 실무인력 등 총 4800명 이상의 인재를 배출하기로 했다. 학부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 설계 특화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 트랙을 내년에 신설할 계획이다.

민·관이 공동투자해 핵심기술 연구개발(R&D), 고급인력 양성, 채용 유도까지 연계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해 향후 10년간 총 3000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배출할 것 단 구상이다.

특히 반도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성 장관은 “우리나라의 초격차 유지와 안정적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선 반도체 핵심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에 우수인력이 질적·양적으로 충분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학계와 업계의 요청 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외 반도체 산업의 여건과 다른 나라의 입법동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탄소중립 ‘민관 수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연말까지 혁신전략 수립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경제 분야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14일 첫 회의를 열었다.

민·관 소통 채널인 수소라운드테이블은 수소 분야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수요를 도출하고 논의한다.

GS리테일 과징금 54억 ‘SSM 중 역대 최고’

대금 떼먹고 부당노동 강요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떼먹고, 납품업자의 직원에게 부당하게 일을 시킨 행위로 54억 원의 과징금 철회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류법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

했다. 공공기관 및 산학연,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꾸려졌고 업계에선 포스코, 엘켄텍, 한화솔루션, 현대오일뱅크, 두산퓨얼셀, SK E&S, 현대자동차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수소경제 추진 경과와 탄소중립 추진계획 등을 소개했고, 탄소중립기술기획위원회가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정책 제언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각 분야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와 연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운영 업체가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5월 한우 납품업자에게 매입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5%를 떼어내고 나머지만 지급했다.

GS리테일은 거래한 모든 한우 납품업자를 상대로 이런 방식을 썼는데, 수취한

된 그린수소 생산 기술 혁신, 액화수소 전주기 기술력 제고, 핵심기술 국산화, 그린수소 인증제 도입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물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분해해 생산하는 그린수소는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다. 앞으로 수송, 산업공정 전반에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에너지 저장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한 과제를 검토해 6월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대금은 38억8500만 원에 이른다.

GS리테일은 또 파견 조건을 미리 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에게 자사 사업장에서 일을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빠빠로’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상품 56억 원어치를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채로 직매입 계약을 맺은 128개 업체에 부당 반품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류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대한민국 보험의 First & Next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

보험업계 최초 디지털 보험설계사
LIFE MD 런칭

생보업계 최초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보험금 지급 능력 최고 등급 AAA
13년 연속 획득

금융기업 최초
한화생명 e sports 창단

보험업계 최초 핀테크 센터
DREAMPLUS 63 오픈

생보업계 최초 태블릿PC 전자서명 시스템
Smart Planner 도입

생보업계 최초 베트남 진출
최다 해외 국가 진출

한화그룹 편입

보험업계 최초
계약자 건강진단 서비스 제도 도입

생보업계 최초
FP출신 여성임원 배출

생보업계 최초
계약자 이익배당 실시

대한민국 랜드마크 63빌딩
아시아 최초·최고층 준공

대한민국 최초 생명보험사

한화생명에는
수많은 처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처음,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보험의 미래를 그려갑니다

고객의 삶 더 가까이에서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할
대한민국 보험의
First & Next 가 되겠습니다



한화생명은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판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1년 4월 1일, 분할 신설법인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합니다.

文 “비위 의혹’ 전효관·‘막말’ 김우남 즉각 감찰하라”

민정수석에 신속 지시... ‘공직기강 다잡겠다’ 의지 전효관 비서관, 서울시 재직 때 자기 회사에 50억 일감 김우남 마사회장, 채용 반대 직원에 욕설·폭언 의혹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전효관 문화비서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에 대해 즉시 감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 제기된 전 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 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시행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사회 노동조합 등은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회장이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마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 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내부 규정이 개선돼 무산됐다. 김 회장은

해당 보좌관을 월 700만 원 급여를 받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폭로한 전 비서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 비서관이 2004년 설립한 A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4~2018년 전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기획관을 지내는 동안 총 51억 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다. 이 회사는 전 비서관이 서울시에 들어가기 전에는 총 사업 수주액이 3건에 800만~4000만 원대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2014~2015년 업체 선정 평가 위원들이 전 비서관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 전 비서관의 소관 부서가 직접 A사에 사업을 발주한 점을 일감 몰아주기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전 비서관은 “전남대로 이직한 2006년 이후 운영이나 지분관계, 사업 수주 관련해 일절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



文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우려”

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왼쪽)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연합뉴스

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문 대통령이 관련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즉시 감찰을 지시한 것은 여권 인

사들의 ‘내로남불’ 행태와 이해충돌 문제가 여당의 재보선 참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데 대

해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일환 기자 whan@

공무원·지방의원 등 189만명 부동산 보유 14일내 신고해야

9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된다

국회 정무위 소위 의결

9년에 걸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노력이 14일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법안은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사흘 연속 열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중 2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입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 여망에 여야 모두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와 권한 등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금지 △직무관련 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의무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적용 대상은 189만 명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추후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 수준의 언론관계법, 사학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성일중(오른쪽) 정무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이 14일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회의에 앞서 이 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얘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k@

정무위·법사위 거쳐 29일 본회의 공직자 정보 남용한 사적이익 금지

처벌 가능한 정보 범위도 확대됐다. 직무상 취득한 비밀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남용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애초 정무위에는 직무상 비밀의 경우에만 해당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된 셈이다.

또 여야는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퇴직 후에도 3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 후 강연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해관계자의 신고 대상은 정부 원안인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엔 신고 대상 범위에서 빠졌다.

가족 채용 제한 대상도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이 투자한 회사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체결도 마찬가지로.

전날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쟁점도 해결됐다.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방지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통합 추진을 위한 부대의견을 작성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6개 법률 소관이 모두 달라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소 반영됐다.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유미 기자 jscs508@

與 당권경쟁 본격 레이스 돌입

‘친문’ 홍영표 출사표...송영길·우원식 오늘 출마 선언

14일 친문(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다음달 2일 예정된 당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14일부터 15일까지다. 홍 의원과 3파전을 벌일 전망인 송영길·우원식 의원은 15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첫 출사표를 던진 홍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영광도 고난도 함께 했다. 저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책임지겠다”며 “마지막 한 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 모든 걸 걸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사람, 저 홍영표다”라고 친문 인사다운 출마의 변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 전환 시그널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선거 패배 원인을 뜯어고치고 내년 대선과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전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14일에는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우 의원은 당내 곳곳에서 다져진 입지를 토대로 당심을 모으고 있다. 그가 몸담은 최다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진보·개혁성향 의원 모임 민주당국민연대(민평연)를 통해 현역 의원들 대부분과 접점이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

‘주호영 vs 중진 vs 초선’ 당권 신경전

김종인 떠난 국민의힘 ‘우왕좌왕’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떠난 국민의힘 대표 자리를 두고 내부에선 치열한 경쟁 조짐이 보인다. 일찌감치 선거를 준비한 홍문표·윤영석·조경태 등 중진 의원은 물론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주호영 원내대표, 초선의 김용 의원 등 여러 주자가 나서서 당 대표를 노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당권을 두고 경쟁이 벌어지면 잡음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14일 오전 당 대표 권한대행과 연석회의에 참여해 차기 당권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당 대표 출마를 노리는 중진들은 다른 주자들을 견제하며 자신을 부각했다.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홍문표 의원은 “우리 당은 자강 시스템

이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가 모여 하나를 일렬종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선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주호영·정진석 의원에게 “패거리 정치”를 하지 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초선 의원들도 출마를 준비하며 중진 견제에 나섰다. 김용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을 실제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놀라고 당황하고 이런 게 많았다”며 “우리가 뭔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권을 두고 펼쳐진 지나친 경쟁이 당내 잡음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준상 기자 joooon@

‘동남아판 우버’ 그랩 스팩 통해 ‘나스닥行’

미국 투자회사와 합병 상장 기업가치 45兆 ‘사상 최대’ SK·현대차 등도 전략투자

‘동남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Grab)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올해 열기를 더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시장에 새 이정표를 세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저널(WSJ)에 따르면 그랩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투자회사 알티미터캐피탈이 세운 스팩 ‘알티미터그로스’와의 합병을 통해 연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병회사 가치는 396억 달러(약 45조 원)로 스팩 합병 사상 최대 기업가치다. 특히 2019년 10월 펀딩 라운드 당시 그랩의 기업 가치가 150억 달러로 평가됐던 것을 감안하면 1년 6개월 사이에서 회사 가치가 2.6배 뛴 셈이다. 스팩 합병을 통한 증시 상장은 기업공개(IPO) 절차보다는 빠르지만, 그랩이 주주총회 결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제 상장에 이르기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랩은 이번 스팩 합병 상장 과정에서 상장지분 사모투자(PIPE)를 통해 최대 45억 달러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된다. PIPE는 기업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사모투자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티로프프라이스, 모건스탠리의 자산운용사 카운터포인트 글로벌펀드,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무다발라, 싱가포르 국부펀드 데마섹 등이 출자한다.

그랩의 나스닥 상장으로 이 회사에 투자한 기업들도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됐다. 대표적인 기업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다. 소프트뱅크는 2014년 12월 그랩에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과 2019년에도 추가로 투자



를 진행해 이 회사에 총 27억 달러를 투입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3월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에 이어 그랩으로도 대박을 터뜨리게 됐다.

우버와 디디추싱 등 각각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차량공유업체들이 그랩에 투자했다. 다수의 한국기업도 그랩 투자자 명단에 있다. 2018년 SK(주)를 비롯해 현대자동차·네이버·미래에셋그룹 등이 투자에 나섰다. 당시 2억3000만 달러를 투자한 SK(주)는 그랩이 상장되면 지분 가치가 5억4000만 달러로 약 2.4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랩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8개국 동남아시아 4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교통, 음식 배달, 호텔 예약, 온라인 뱅킹, 모바일 결제 및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앱 다운로드 건수만 2억1400만 건 이상이다. 지난해 매출은 16억 달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대유행)에도 전년 대비 60% 급증했다.

다만 회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그랩은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해 2023년까지 회사 매출을 45억 달러로 끌어올리고, 이자·세금·가상상각비 이전 기업이익(EBITDA) 기준으로 흑자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상장 앞둔 ‘코인베이스’ 꽃길 까는 ‘비트코인’

美 암호화폐 거래소 오늘 나스닥 입성, 비트코인 ‘6만4000달러’ 최고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증시 데뷔를 앞두고 축포를 쏘아 올렸다.

미국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4일 비트코인 가격은 6만4000달러(약 7144만 원)를 훌쩍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6만3000달러를 돌파한 지 하루 만에 신기록을 또 세운 것이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가격도 2400달러 선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그간 비트코인 상승을 부추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도 전날 8.60% 급등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코인베이스의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시장에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미국 CNBC방송은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날 직상장 방식으로 나스닥에 데뷔한다. 코인베이스는 시총만 최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한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ICE)와 나스닥 등 주요 증권 거



래 플랫폼보다 큰 규모다. 2012년 설립된 코인베이스는 가상화폐 투자 활성화 덕분에 고속 성장, 현재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자리에 올랐다. 올해 1분기 매출은 18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배 증가하고 지난해 연 매출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가상화폐 거래소 루노의 마커스 스웨인폴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상장은 가상화폐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업계의 신뢰와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여전히 업계에는 약간의 불신이 있다”며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가상화폐를 단순한 자산이 아닌 진지하게 받

아들여야 할 사업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 상장은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올라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간접 투자의 길도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코인베이스가 포함된 ETF를 골라 비트코인 열풍에 동참할 수 있다.

애플리파이ETF의 크리스티안 마군 최고경영자(CEO)는 “코인베이스의 상장은 현재 존재하는 2~3개의 펀드를 넘어 ETF 시장에 새로운 차원의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아코인베스트와 이노베이션ETF도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트와이즈자산운용의 매트 휴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투자자들은 전년 대비 매출이 9배 증가한 회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형주에서도 이런 성장을 볼 수 없었다. 모든 투자자는 자본시장에서 가상화폐를 다루는 곳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리커창 “미·중 협력 확대” 리커창(가운데) 중국 총리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 재계 인사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회의에는 헨리 폴슨 미국 전 재무부 장관과 미중무역위원회 관계자, 기업 CEO 20여 명과 함께 중국 측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허리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 등이 참석했다. 리 총리는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협력 상생의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며 “시장 개방은 중국의 기본 정책이다. 우리의 문은 더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IMF “韓, 고령화發 부채폭발 경계해야”

GDP 대비 정부 부채 5년간 상승 전망 ‘노동시장 개혁’ 주문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 최대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 재정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고령화를 꼽았다.

그는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면서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어느 국가보다 빠르다. 급기야 지난해 한국은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첫 인구 자연감소 해로 기록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14일 발표한 2021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2년 연속 조사 대상 19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IMF는 이날 초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 정부 부

채 비율이 올해 53.2%에서 2026년 69.7%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절대 수치로는 한국보다 높지만,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대조된다.

IMF는 한국이 탄탄한 제조업과 양질의 노동력 등 강력한 펀더멘탈에 힘입어 당분간 부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펀더멘탈만으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및 기타 비용 상승을 견디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국가 재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계획에 따른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할 때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령화에 대비해 노동시장의 강력한 안전망과 근로자 훈련, 유연성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美기업, 바이든에 “온실가스 50% 감축” 촉구 서한

〈2005년 대비〉

애플·구글 등 기후변화 정상회의 앞두고 구체적 방안 요구

다음 주 미국 주최로 개최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 바이든(사진) 정부에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향한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애플, 구글 등 미국 내 310개 주요 기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13일(현지시간) CNBC방송이 보도했다. 서명에 참여한 기업은 애플, 구글, 코카콜라, 월마트, 나이키 등 IT와 제조업에서 소매업까지 다양하다. 제너럴일렉트릭(GE)과 에디슨인터내셔널 등에너지 관련 기업도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2030년이라는 구체적 목표설정이 강력한 경기 회복을 이끌어 내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은 보다 강력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미국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내구성 있는 인프라, 탄소 배출 제로인 자동차와 건물의 생산과 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미국인이 이미 기후변화 영향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극심한 한파에서부터 치명적인 산불과 기록적인 허리케인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간의 인적,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다. 안타깝게도 이런 파괴적인 기후 영향은 이를 잘 견디기 어려운 소외 계층과 저소득 지역 사회에 불균형적으로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흐름을 늦추고 뒤집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미국이 2030년 목표를 약속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들을 자극, 야심 찬 목표 설정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국제 공조 측면에서의 의의도 제시했다.

서명에 참가한 기업들은 미국에서 약 600만 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은 총 3조 달러(약 3353조 원) 이상이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자동차 대기업 르노, 세계 최대 가구 유통업체 이케아 등 다수 기업의 지지를 얻는 형태로 미국 정부에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함께 행동하는 것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탈(脫) 탄소로 향한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바이든 정부는 22·23일 주요 탄소배출국들을 모아 화상으로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주최해 열 예정이다.

변호선 기자 hsbun@

저축銀 “하루만 맡겨도 이자” 식지 않는 파킹통장 인기

투자 목돈 잠시 보관하는 용도 일정액 예치 연 1% 이상 이자 신규가입 많아 ‘홍보효과’까지 금리 인하에도 자금 유입 꾸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루만 맡겨도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의 ‘파킹통장’ 통장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늘어난 수신을 조절하기 위해 파킹통장의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넘치는 유동성에 파킹통장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파킹통장은 일정 금액 이상을 통장에 예치하면 통상 연 1%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는 입출금 통장으로, 단기간 내 인출해도 이자를 지급한다. 차량을 주차하듯이 목돈을 은행에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 파킹통장이라고 부른다. 14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금리 상

황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풍부해진 유동성이 파킹통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2월 초 비대면 채널 전용 상품으로 ‘페퍼툴루 파킹통장’과 ‘2030 정기적금’을 선보인 지 두 달만에 총 3만 개의 계좌가 신규 증설되고, 예치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300만 원 이하의 예치 금액까지는 연 2%, 300만 원부터는 연 1.5%의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예치할 수 있는 페퍼툴루 파킹통장을 개설한 가입자 중 90%가 신규 고객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뱅뱅뱅 파킹통장 369 정기예금’을 지난달 선보인 지 3일 만에 상품수익이 500억 원을 돌파했다. SBI저축은행의 파킹통장 사이다뱅크 입출금 통장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저축은행 전체 수신액은 올해 2월 기준 83조2645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4조 원가

량 늘어났다.

저축은행은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고 조만간 발표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대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에 파킹통장의 금리를 이전보다 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파킹통장의 인기는 높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초반에 파킹통장의 성장세가 급격히 빨랐다”면서 “초반 추세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뱅뱅뱅 파킹통장 보통예금의 금리를 연 1.3%로 0.1%포인트(p) 인하했으며, SBI저축은행은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 금리를 연 1.2%로 0.1%p 내렸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수신을 받은 만큼 대출해야 하니 파킹통장의 금리가 최근 내려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파킹통장의 인기에 저축은행은 신규 고객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특히 오픈뱅

주요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 (연금리) 1.2%	페퍼저축은행 페퍼툴루 파킹통장 (300만 원 이하) 2% (300만 원부터) 1.5%	상상인저축은행 뱅뱅뱅 파킹통장 369 정기예금 (연금리) 1.3%

킹 시행을 앞둔 저축은행에는 파킹통장으로 유입된 고객이 오픈뱅킹 서비스까지 이용하게 되면 충성 고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셈이어서 파킹통장의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아직 파킹통장의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않은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파킹통장의 금리를 인하할 계획은 있지만, 오픈뱅킹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비대면을 통한 파킹통장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은 금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알뜰폰 ‘KB리브엠’ 노조 반대 뚫고 혁신금융 재지정

“실적압박” 연중 시위 속 2년 연장 금융위 “노사 의견 반영해 보완”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모바일(리브엠)’이 혁신금융으로 재지정되면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인 ‘리브엠’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17일 최초로 지정된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9건 중 하나로 그해 11월 서비스가 출시됐다. 금융회사가 내놓은 금융과 통신 첫 융합 서비스다. 국민은행은 2년의

규제 특례 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노조는 과도한 실적 압박 등을 이유로 재지정에 반대하고 나서 현재 10만 명의 가입자를 둔 리브모바일의 재지정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 노조의 반대에 대해서는 “그간 노사가 제기해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 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년 전 국민은행이 가상이동통신망사

업을 부수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라는 등의 부가조건을 달았다.

사업 초기부터 노조는 영업점에 부담을 준다며 사업을 반대해왔다. 노조는 서울 여의도 은행 본점 앞에 리브엠 판매와 관련한 반대 팻말을 거는 등 연중 시위를 벌여왔다.

이날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부산은행)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하나은행) 등 3건의 신규 혁신서비스를 지정했다. 김범근 기자 nova@

KB·포스텍, 디지털혁신센터 설립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포항공과대학교와 ‘디지털혁신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과 포스텍은 디지털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분야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아키텍처, 보안 등이다. 학계의 최신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B국민은행과 포스텍은 디지털 금융 관련 과학기술역량 및 실무 경험의 교류를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포스텍의 AI, 산업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 대학 등 분야별 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하고, KB국민은행 임직원과 인적교류를 실시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지연 기자 sjy@



허인(왼쪽) KB국민은행장과 김무한 포스텍 총장이 13일 KB국민은행 본점에서 디지털혁신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 KB국민은행

허점 드러난 플랫폼 금융

▶1면서 계속

배달 앱은 리뷰 10건당 6만 원, 주문 10건당 2만 원, 즐겨찾기 100건당 15만 원 수준이다. 오픈마켓 허위 주문은 SNS 오픈 채팅방과 마찬가지로 빈 박스 배송으

로, 배달 앱 허위 주문은 앱 내 결제가 아닌 배달원과 만나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가 이런 정보를 활용한 신용 평가 방안을 내놓으면서 자영업자에게는 리뷰와 주문 건수가 사업의 필수 요소가 됐다. 한 자영업자는 “조작업자를 안 찾으려면 안 찾을 수 없게 한다”고 토로했다. 금융위

는 허위 리뷰·주문에 대해 준비한 것은 따로 없다며 비금융CB사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 평가는 오차가 있는데 (조작된 리뷰와 주문 건수는) 그런 오차에 포함될 것”이라며 “데이터는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라서 (조작은) 통계학적으로 걸러지지 않을 까 싶다”고 말했다.

금융에 블록체인을 더하다

신한銀 ‘공공 블록체인’ 헤더라 가입

이사회 멤버로 銀 보안 개선

신한은행은 14일 헤더라 해시그래프(Hedera Hashgraph, 이하 헤더라)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관리를 총괄하는 헤더라 이사회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헤더라는 탈중앙화된 기업 수준의 퍼블릭 네트워크로 누구나 안전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에 가깝게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구글, IBM,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플랫폼 이사회에 참여 중이다.

신한은행은 헤더라의 퍼블릭 ‘분산원장 기술(DLT)’ 인프라를 활용해 더 많은 서비스를 구축, 은행분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DLT를 활용하는 금융 분야 선두 기업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디지털 자산을 수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투자를 집행했다.

지난달에는 LG CNS와 함께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범 플랫폼을 완성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고객과 파트너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헤더라의 퍼블릭 분산원장 기술은 핀테크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빠르고 공정하며 안전해야 한다는 니즈를 충족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헤더라 이사회에 참여해 다양한 업종의 글로벌 기업들과 차세대 금융 솔루션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헤더라 네트워크는 신한은행 프로세스 상 효율성을 높일 기반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한은행은 2017년부터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기초로 정책자금대출, 퇴직연금, 장외파생상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해왔다.

김범근 기자 nova@

하나銀, 한은 디지털화폐 기술 검증

이달까지 시범 유통망 구축

하나은행은 포스텍 크립토펙토블록체인 연구센터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술검증을 수행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8월 국내 금융권 최초로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포스텍과 함께 테크핀 산학협력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이번 산학협력은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한 사례다. 하나은행은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할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검증해 시중은행이 정상적인 유통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시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기술 검증은 처리속도가 빠르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과 연계가 용이한 코스모스(Cosmos) 플랫폼을

통해 진행됐다.

중앙은행의 CBDC 발행 후 이어지는 시중은행의 공급, 개인의 교환 및 이체와 결제 등 디지털화폐가 실물화폐처럼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는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CBDC의 일반적인 화폐 기능 테스트뿐만 아니라 특정 업종 또는 지역에서 서민 결제되도록 하거나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되도록 조건 설정도 가능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가상 시나리오 검증을 시작으로 한국은행의 CBDC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기술검증을 수행하겠다”며 “하나은행은 금번 연구를 시작으로 CBDC 도입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jinsa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하나로 힘을 모읍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하나금융그룹의 첫걸음
[BIG STEP FOR TOMORROW]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과
친환경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기술이
하나가 되어야 지구를 지킬 수 있기에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의 힘으로
지구를 지키는 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ESG [BIG STEP FOR TOMORROW]

STEP1 탈석탄 금융, 탄소중립 추진으로 탄소 제로 이행에 동참 >> STEP2 ESG 금융 활성화로 금융의 환경 및 사회적 기여 확대 >> STEP3 투명한 ESG 정보 공개를 통한 이해관계자 신뢰도 제고

삼성, 사상 첫 노트북 언팩 '언더독 반란' 노린다

28일 오후 11시 온라인 개최

삼성전자가 노트북 PC 언팩(공개) 행사를 28일 개최한다. 그동안 주로 스마트폰 분야에서 언팩행사를 열었는데, 노트북 언팩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노트북 수요가 늘자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TV 등이 전 세계 점유율 1위인 것과 달리, 노트북 점유율은 1%대에 머무르고 있는 글로벌 노트북 시장에서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14일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에 '갤럭시 언팩: 가장 강력한 갤럭시가 온다(The most powerful Galaxy is coming)'를 주제로 초청장을 보내고 이달 28일 오후 11시(미국 동부시간 오전 11시)에 온라인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2초 분량의 트레일러 영상도 공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언팩에서 갤럭시 에코 시스템을 확장해 차세대 모바일

'갤럭시 북 프로' 등 신제품 공개 재택근무 확산 수요 급증 대응 글로벌 1%대 점유율 탈피 정조준

경험을 제공하는 역대 가장 강력한 갤럭시 기기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 행사에서 어떤 제품이 공개될지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갤럭시 북 프로·프로 360, 갤럭시 크롬북 신제품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 북 프로는 기존 노트북과 비슷한 폼팩터(하드웨어 형태)이며, 프로 360은 360도로 접을 수 있는 터치 패널과 S펜을 적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국내 노트북 시장에서 LG전자와 함께 시장을 양분하고 있지만, 세계 노트북 시장에선 레노버, HP, 델, 에이서 등 메이저 PC 기업들에 밀려 존재감을 거의 잃은 상황이다.

2012년 말 PC 사업부를 IM(IT·모바일) 부문으로 통합하고 PC 사업은 국내 시장 위주로 판매해 왔다. 삼성전자 글로



삼성전자 언팩 초대장.

사진제공 삼성전자

벌 노트북 판매량은 2012년 1500만 대에서 2019년 290만 대까지 급감했다. 점유율도 지난해 기준 1.7%(370만 대)로 순위권 밖이다.

지난해 글로벌 PC 판매량은 3억2000대를 기록하며, 2019년 대비 약 13% 성장했다. 전년 대비 성장률 10%를 웃돈 것은 2010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글로벌 판매량 기준 3억 대를 넘어선 것도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터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수요가 늘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는 올해 1분기 글로벌 PC 시장 출하량이 827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가트너 집계에서도 1분기 글로벌 PC 시장 출하량은 32% 늘어난 6990만 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과거 스마트폰에서 선제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한 것처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터치패널 채용을 늘려 노트

북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노트북용 OLED 패널 제품군을 10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노트북 판매량이 예년보다 3배가량 증가한 1000만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인 증세가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노트북 시장이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삼성전자의 판매 전략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언팩이 그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DMI, 드론 신제품 'DS30W' 공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이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드론쇼 코리아에 드론 신제품인 DS30W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DS30W는 기존 드론들보다 내풍성이 강화됐다. 사람이 서 있기 힘든 바람이 불어도 무리 없이 작동한다. 비가 와도 비행할 수 있도록 방수 기능을 갖췄다.

사진제공 두산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이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드론쇼 코리아에 드론 신제품인 DS30W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DS30W는 기존 드론들보다 내풍성이 강화됐다. 사람이 서 있기 힘든 바람이 불어도 무리 없이 작동한다. 비가 와도 비행할 수 있도록 방수 기능을 갖췄다.

삼성, 8회 연속 '美 에너지스타상' 최우수상

외국기업 첫 '기업공로 대상'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제품·사업장 에너지 저감 노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미국 환경청(EPA)이 주관하는 '2021 에너지스타상'에서 외국기업 최초로 '기업공로 대상'과 전기 어워드 최고 등급인 '지속가능 최우수상'을 8회째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에너지스타상'은 미국 정부가 환경·에너지 분야의 약 2만 개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스타 인증 활용, 대외홍보, 마케팅 우수활동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기업공로 대상'은 기업의 에너지 정책과 운영 등의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고효율 제품' 분야를 모두 평가해 시상하는 최고권위의 상으로, 1993년 '에너지스



'2021 에너지스타상'의 전기 어워드 최고 등급인 '지속가능 최우수상' 상패 이미지.

대상' 제정 이후 외국기업이 수상한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사업장에서 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해 미국에서 에너지스타 인증을 취득한 303개 에너지 고효율 모델을 출시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롯데케미칼 컴파운드 제품 세계 첫 환경성적표지 인증

롯데케미칼은 자사의 컴파운드 제품이 미국 글로벌 안전·환경 인증기관 UL로부터 EPD(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컴파운드 제품군에서 UL의 EPD 인증을 받은 것은 세계 최초다.

롯데케미칼의 GC-1214 컴파운드 제품은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인 PCM PC(Post Consumer Material Polycarbonate)를 적용한 첨단소재다.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반 제품 대비 약 15% 낮고, 난연 관련 우수성을 확보해 대형 가전제품 등에 쓰인다.

특히, 상업용으로 쓰이는 삼성전자의 사이니지 TV Rear Cover(TV 뒷면 커버)에도 적용된다.

이영준 첨단소재사업대표는 "첨단소재사업의 국내 및 해외 사업장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LCA Tool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소재와 솔루션 개발을 통해 첨단소재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LG화학, 여수 CNT 2공장 가동 본격화

공정 자동화 전력 사용 30% ↓ 년 1700톤 생산 능력 확보

LG화학이 전남 여수에 있는 탄소나노튜브(CNT)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CNT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LG화학이 CNT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14일 여수 CNT 2공장이 1200톤 증설 공사를 마치고 상업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증설 공사로 총 1700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CNT는 전기와 열전도율이 구리, 다이아몬드와 동일하다. 강도는 철강의 100배에 달한다. 차세대 신소재로 평가받는 이유다. 기존 소재보다 우수한 특



LG화학 여수 CNT 2공장 전경.

성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부품, 면상발열체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완공된 2공장은 자체 개발한 유동층 반응기를 사용해 단일 라인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모든 공정을 자동화해 이전보다 전력 사용량을 30% 절감했다.

2공장에서 생산되는 CNT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업체에 양극 도전재 용도로 공급된다. 양극 도전재는 전기와 전자의 흐름을 돕는 소재로 리튬이온배터리 첨가제로 사용된다.

LG화학은 여러 산업 분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반도체 공정 트레이, 자동차 정전도장 외장재 등 전도성 컴파운드와 면상발열체, 반도체 고압 케이블, 건축용 고강도 콘크리트 등으로 판매를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CNT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3공장을 추가 증설할 예정이다. 실제 CNT 수요는 지난해 5000톤에서 2024년 2만 톤 규모로 연평균 약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영 기자 kdy@

포스코인터, 2030년까지 '글로벌 TOP 10' 식량사 도약

매출 10兆 목표, 곡물 취급량 800톤 → 2500톤 확대

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인터)이 식량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곡물 취급량을 3배 이상 늘리고 글로벌 '톱(Top) 10' 식량종합사업회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포스코인터는 14일 2030년까지 곡물 취급량을 800만 톤에서 2500만 톤으로 확대하고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는 정량적 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농, 저장, 가공, 물류 등 유통 단계별 연계를 강화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국제 곡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전략

이다.

포스코인터는 식량사업 부문에서 이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제 메이저 곡물 회사들이 주도하는 세계 시장에서 곡물 취급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포스코인터 곡물 취급량은 2015년 84만 톤에서 2020년 800만 톤으로 약 9.5배 증가했다.

또 트레이딩에 그치지 않고 농장·가공·물류 인프라에 이르는 식량 밸류체인(Value Chain)을 차례대로 구축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 왔다.

포스코인터는 현재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터미널, 미얀마 쌀 도정공장,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 등 식량생산국 현지 사업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인프라 운영과 트레이딩을 연계해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포스코인터 관계자는 "식량 사업은 사양 시장이 아니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전후방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한 성장 시장"이라며 "식량 사업 확대를 메이저 곡물 기업에 버금가는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수익 창출과 식량안보에 이바지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삼성엔지니어링, 7400억 사우디 플랜트 수주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플랜트를 수주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3일 사우디 석유화학회사 APC의 자회사인 AGIC와 약 6억 5000만 달러(약 7350억 원) 규모의 '사우

디 AGIC PDH(프로판 탈수소) & UTOS(유틸리티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우디 북동쪽 해안에 있는 주베일 2공단 내에 연간 84만여 톤

규모의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PDH 플랜트와 UTOS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공예정이다.

PDH 플랜트는 프로판에서 수소를 제거해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시설이며, UTOS는 플랜트에 필수적인 물과 공기, 스팀을 생산하는 유틸리티 생산 설비, 부대시설, 수처리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주혜 기자 winjh@

“아이템 확률 모두 공개” 넷마블 ‘제2의 나라’ 6월 출격

韓·日 등 5개국에 동시 출시... 日 지브리 원작 재해석 감성 물씬
유저 업데이트 내용 미리 파악... 개발사 ‘넷마블네오’ 상장 추진

넷마블의 올해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제2의 나라: Cross Worlds’가 베일을 벗었다. 이날 사전예약을 시작하는 제2의 나라는 오는 6월 국내외 5개국에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아이템의 확률을 모두 공개한다고 밝히며 이용자들의 기대를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넷마블은 14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사옥 C밸리 지스퀘어에서 ‘제2의 나라’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게임 정보와 서비스 입장을 공개했다.

제2의 나라는 이날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오는 6월 중 한국과 일본, 대만 등 5개국에 동시 출시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전 지역으로 출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제2의 나라는 카툰 렌더링 방식의 3D 그래픽, 수준 높은 컷신, 음악 등이 더해진 게임”이라며 “이용자들의 감성을 흐드레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2의 나라는 일본의 레벨라이브와 스튜디오 지브리가 협력한 판타지 RPG ‘니노쿠니’를 모바일 RPG로 재해석한 게임이다. 원작을 세계관을 새롭게 구성해 카툰 렌더링 방식의 3D 그래픽으로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넷마블은 유저들이 불편함 없이 게임을



권영식 넷마블 대표이사가 14일 서울 구로 GE타워에서 열린 ‘제2의 나라’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게임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넷마블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연간 업데이트 플랜을 사전에 공유한다. 매일 진행되는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변화된 내용을 유저

들이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게임 출시 이전에는 사전 온라인 쇼케이스도 마련해 유저들에게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한다.

또 제2의 나라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게임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을 충족시키며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전담조직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논란을 겪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획득과 관련해서는 유저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유저들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가치를 최우선 보전하고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권영식 대표는 “최근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가 업계 큰 이슈로 떠올랐으며, 이에

넷마블은 아이템 확률을 최대한 공개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기존 서비스하는 게임들도 확률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지만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임들은 더 공격적으로 확률 공개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넷마블은 제2의 나라를 개발한 넷마블네오를 기업공개(IPO)한다. 넷마블네오는 넷마블의 최대 히트작으로 꼽히는 ‘리니지2 레볼루션’을 개발할 곳이다. 2018년에는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를 국내외에 출시하며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넷마블네오는 상장을 위한 주관사 선정에 마무리했으며 게임 성과에 따라 상장 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권 대표는 “제2의 나라 출시 이후 좋은 성과가 있으면 곧바로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ati@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동 건 개인정보위

“판매자 정보 확인 의무 등 정보 침해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오전 개최된 6차 전체 회의에서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뤘다.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2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개인정보위에 요청한 바 있다.

윤종인(사진)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전체회의에서 “검토 결과 온라인 플랫폼운영사업자의 개인판매자 정보 확인 의무와 개인 정보의 소비자 제공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개인정보위는 본 법안에 대해 전문가·산업계·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최소수집 원칙 등에 비추어 동 법안을 평가하고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시한 법안으로 지난 1월 공정위가 발의했다. 위해 물품이 온라인에 유통될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고,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 및 제공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의 개정안 발표 직후 한국인터넷 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2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정책·제도 변경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해야 한다.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장에게 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미 국회에는 공정위와 기업의 신경전을 중재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을)은 지난달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29조 1항 개인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전화번호·주소 중 ‘주소’ 삭제,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위와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만큼, 공은 공정위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오늘 다른 내용은 중간보고 성격”이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

시민단체, 분조위에 조정 신청

KT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의 조정을 받아들여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을 수행키로 했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를 환영 의사를 밝혔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KT의 분쟁조정위 조정 결정 수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라며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피신청인인KT에게 “조정성립일로부터 6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기지국 접속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실제 내용의 열람 조치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 조치를 이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본지 4월2일자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이 조정을 KT가 수락해 전담 조정이 성립됐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해 9월 SKT, KT,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청구를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

리 구제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K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SKT에 대해서는 올해 2월 8일 열람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T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에서 분쟁조정위는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자(IMSI), 기지국 고유번호인 셀 ID 등 기지국 접속 정보 역시 개인정보이며, 따라서 개인정보 열람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KT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온전히 보장한 것이 아니며 ‘개인정보의 실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분쟁조정위와 달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ISA는 ‘피신고업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처리정지 방법에 대해 답변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을 보냈다”며 “LG유플러스는 처리정지 방법에 대해 답변하지도 않았을뿐더러,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기지국 접속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면 왜 침해신고를 했겠는가”라고 규탄했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동반위 ‘ESG 경영 도입’ 中企에 금리우대 혜택

동반성장 CEO 과정 운영도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교육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동반위는 14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65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지원책을 담은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최고경영자 및 실무자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대학에 개설해 동반성장 관련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반성장 교육은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의 필요성 △사회적 가치 및 ESG 등 글로벌 기업 환경의 이해 △4차 산업혁명과 미래기술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정책 이해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높은 교육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법적으로 대기업·공공기관 임원, 중소기업 CEO, 정부·유관기관 임원 등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계획은 7월~8월 수강생을 모집해 9월~12월, 15주간



권기홍(가운데) 동반성장위원장이 14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65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동반성장위원회

교육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반위는 최근 세계적인 추세인 ESG 경영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벌여오던 ‘중소기업 CSR 지원사업’을 대·중견기업, 공기업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동반위와 대·중견기업, 공기업이 협력사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동반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ESG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사업에 참

여한 대·중견기업의 협력사 ESG 지원 실적을 동반성장지수에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ESG 경영을 도입한 우수 협력사에는 금리우대 등의 금융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들의 ESG 경영에 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평가와 규제를 넘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종민 기자 kjm@

카카오커머스,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 합병

“글로벌 패션시장 도전”

카카오는 카카오커머스의 스타일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과 합병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합병 법인은 카카오 자회사로 편입된다. 합병 법인의 명칭은 지그재그의 이름을 딴 ‘카카오Z’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정훈 대표가 이끌게 된다.

패션 분야에서 보유한 빅데이터와 카카오의 기술력 및 사업 역량 등을 결합해 경쟁력 있는 사업 기반을 갖추고,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글로벌 패션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전략이다.

2015년 출시한 ‘지그재그’는 4000곳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과 패션 브랜드를 모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다. 2030대 중

성 고객을 확보해 올해 연 거래액 1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 지그재그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기순, 연령별, 스타일별로 여성 쇼핑몰을 분류해서 보여주며 AI 기술을 활용해 선호 쇼핑몰, 관심 상품, 구매 이력 등에 따른 개인 맞춤형 추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9년에는 각기 다른 쇼핑몰의 상품을 하나의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는 통합 결제 서비스 ‘제트(Z) 결제’를 선보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바 있다.

배재현 카카오 수석부사장은 “지그재그는 MZ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패션 커머스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검증받았다”며 “카카오가 보유한 글로벌 콘텐츠 및 팬덤의 영향력과 시너지를 통해 향후 물류 접근성이 쉬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 글로벌 패션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ati@

‘매출 4000억’ 날아오른 치킨

배달 수요 늘며 작년 사상최고 매출
교촌·bhc·BBQ ‘빅3’ 뜨거운 각축전

코로나 이후 배달 수요에 힘입어 치킨 브랜드 4000억 원 시대가 열리면서 교촌·bhc·BBQ 등 치킨 빅3의 ‘물고 물리는’ 추격전이 뜨겁다.

치킨 3사는 지난해 일제히 사상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bhc치킨은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4000억 원을 돌파하며 1위인 교촌에프앤비(이하 교촌)와 매출 격차를 470억원으로 좁혔고, 3위인 BBQ는 지난해 3346억원의 매출로 2위인 bhc와의 격차가 약 650억원이다.

올해도 교촌은 가정간편식(HMR)과 해외진출을, bhc치킨은 상생 협력 및 사이드 메뉴개발을, BBQ는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과 배달 매장 등을 앞세워 영토 확장에 나선다.

bhc치킨은 지난해 매출이 400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6% 성장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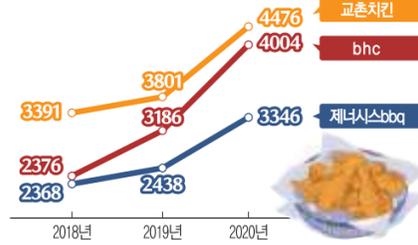
bhc치킨 가맹점 역시 지난해 평균 매출이 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진행한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위한 100억 원 지원 프로젝트는 가맹점 매출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가맹점 중 시설이 낙후되었거나 매장 이전 등 지원이 필요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아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250여 매장을 대상으로 착공을 마쳤다.

이에 따라 새로 문을 연 bhc치킨의 가맹점 수도 늘었다. 2019년 1469개였던 가맹점 수는 지난해 1518개로 늘었다. 이 기간 가맹점 면적(3.3㎡)당 평균 매출액도 1878만 원에서 2348만 원으로 25% 성장했다.

bhc치킨 임금옥 대표는 “꾸준히 추진해 온 전문·투명·상생경영을 기반으로 콤보 시리즈 신메뉴가 소비자 선택을 받았고, 품질 강화를 위해 핵심 역량을 집중한 것이 효과를 봤다”라고 말했다.

bhc치킨은 고속성장세에 힘입어 1위 교촌과의 매출 격차도 점차 좁히고 있다. 2018년 교촌과 bhc치킨의 매출은 1015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격차는

주요 치킨업체 연도별 매출
(단위 : 억 원) ※출처: 각사



472억원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bhc치킨은 ‘주연보다 강한 조연’으로 알려진 치즈볼 등 사이드 메뉴 개발 덕도 봤다. 치즈볼은 지난 한 해 동안 800만 개 이상 판매되며 지난해 bhc치킨의 매출 구성비 중 두 자릿수를 차지할 정도로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교촌도 성장세가 빠르다. 2017년 매출액 3188억원으로 3000억 치킨클럽에 입성한 후 지난해 전년보다 18% 성장한 4476억원의 매출로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전체 가맹점 매출 역시 처음으로 1조 원(가맹점 기준)을 돌파했다.

교촌은 최근 경기도 평택시에 수도권 물류센터를 신축 개관해 국내 사업 물량 증가와 HMR 등 신규 사업 확장에 따른 처리 능력을 강화한다.

해외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재 교촌은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해외 6개국에 47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3월 싱가포르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고, 최근 두바이에서 ‘갈라디 브라더스 그룹’과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지난해 3346억 원의 매출을 올려 bhc치킨을 뒤쫓고 있는 BBQ 역시 속도전이 한창이다. BBQ는 MZ세대를 겨냥한 유튜브 예능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실적, 이미지 제고를 모두 챙긴 덕분에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BBQ는 최근 ‘역주행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브레이브걸스를 모델로 전격 발탁하고 누적 계약건수 300건에 달하는 포장·배달 전문매장 BSK(BBQ Smart Kitchen)를 앞세워 성장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혜지 기자 heyji@

‘캔 공급대란’ 김 빠지는 맥주

캔 점유율 1위 한일제관 공장 화재
소규모 수제맥주 업계 캔 부족 비상

수제맥주 업계의 캔 공급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코로나 이후 흡술 열풍으로 가정용 캔맥주 수요가 늘어난 데다 지난달 국내 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한일제관 공장의 화재로 공급량이 급감한 것이 원인이다.

흡술족의 가정용 맥주 소비 증가로 지난해 주요 맥주 제주시의 캔맥주 판매 비중은 병맥주를 넘어섰다. A사의 경우 2019년 병맥주와 캔맥주 비중이 52대 48에서 지난해 45대 55로 역전됐다. B사의 경우는 캔 맥주 비중이 64.8%에서 84.7%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을 정도다. 코로나 19로 집에 머무는 이들이 캔맥주를 흡술 주종으로 그만큼 많이 선택했다는 얘기가.

캔맥주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음료 캔 시장의 42%를 점유하고 있는 업계 1위 한일제관 음성공장에 지난달 화재가 발생하면서 캔 수요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14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수제맥주 제조사를 중심으로 캔 공급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구매력이 있는 종합주류기업인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오비맥주 등은 연간 계약을 통해 캔 수요를 미리 확보하기 때문에 이번 캔 대란에서 비교적 비켜나 있지만 중소규모 제조사들은 당장 캔 수요 부족으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에 집중해온 수제맥주 업계가 공급 부족에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불이 난 한일제관 음성공장은 음료와 통조림 캔 제조라인이다. 맥주 캔 라인도 아니지만 음료 캔 공급 차질로 맥주캔 라인까지 음료 캔 제조에 활용하면서 음료뿐만 아니라 맥주까지 캔 공급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수제맥주는 주세법 개정으로 수입맥주와 동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제 맥주 시장규모는 1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5% 성장했으며 2024년까지 3000억 원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주요 편의점의 맥주 매출 비중도 수제 맥주가 10% 안팎까지 늘었다. 2년 전만 해도 2~3% 수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만한 성과다.

수제맥주 기업들의 성장도 눈부시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중인 제주맥주의 경우 지난해 2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해온 카브루는 지난 2월까지 수출실적이 전년 총 수출액의 2배를 돌파했다.

카브루는 지난해 10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진주함에 인수될 당시 매출을 2.5배 상회할 만큼 성장했다. 세븐브로이의 곱포일맥주는 지난해에만 100만 병이 팔려나가며 수제맥주 전성기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흡술과 주세법 개정이라는 겹치재로 성장한 수제맥주 시장이 캔 공급 부족으로 주춤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캔 수요가 늘어났지만 기존 캔 생산기업들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캔 수요가 다시 축소될 가능성 때문에 생산라인을 확장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위 기업이 화재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어 수제맥주 기업들에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맥이나 흡 등 원재료가 아닌 캔 등 부재료 공급 문제가 수제맥주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며 “일부 기업은 캔 대신 병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현희 기자 yhh1209@

11번가 “자정까지 주문하면 내일 도착”

우정사업본부와 익일배송 시작
오후기 등 23개 브랜드 1000종

11번가가 오늘 주문한 상품을 바로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는 ‘오늘주문 내일도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늘주문 내일도착’ 서비스는 평일 자정까지 주문한 상품을 바로 다음날 받아볼 수 있다. 고객이 잠들기 전, 밤늦게 주문해도 내일이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빠른 배송 서비스다.

11번가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제공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빠른 배송 서비스를 완성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우정사업본부와 유통·물류간 협력 서비스 확대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대전우편물류센터에서 11번가 판매자 상품의 입고·보관·출고·반품·재고관리가 가능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11번가에서 당일 자정까지 입고 상품의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발송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대전우편물류센터에서 발송해 읍면 단위의 촘촘한 배송인프라를 갖고 있는 우체국 택배로 전국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 다음날 바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11번가는 ‘오늘주문 내일도착’ 서비스를 위해 오후기, 한국P&G, 동서식품, 아모레퍼시픽, 롯데칠성음료, 종근당건강, 정정원, 동원 등 국내외 23개 대표 브랜드

와 손을 잡았다. 커피, 음료, 건강식품 등 식품류와 화장품, 휴지, 물티슈, 기저귀 등 생활필품을 중심으로 △락토티(종근당건강) △팸퍼스(한국P&G) △칠성사이다(롯데칠성음료) △리스테린(존슨앤드존슨) 등 각 브랜드 대표 인기 상품을 엄선해 1000여 종의 상품을 판매한다.

이진우 11번가 영업기획담당은 “오늘 주문한 상품을 내일 받아볼 수 있는 익일배송 서비스로 11번가에서 더 편리하고 빠르게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며, “현재 23개 브랜드 외에 추가로 20여 개 브랜드의 입점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생활용품 등 고객이 빠른 배송을 원하는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주문 내일도착’ 상품은 11번가 ‘오늘발송’ 탭에서 모든 상품을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다. 11번가는 서비스 시작과 함께 30일까지 기획전 행사 상품에 대한 15% 할인쿠폰(최대 1만원)을 하루에 5장씩 제공하고, 중복할인이 가능한 6대 카드사 15% 할인쿠폰(최대 5000원)을 추가로 3장씩 매일 제공한다.

현재 11번가는 판매자가 주문 당일 발송하는 상품을 모아 놓은 ‘오늘발송’ 탭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 당일 자정까지 지정된 주문 마감시간 전에 주문한 상품을 바로 발송처리해 배송이 빠르게 진행된다.

남주현 기자 jooH@



이마트 “토마토 20% 할인”

이마트가 토마토 제철인 4월을 맞아 15일부터 21일까지 토마토 전품목 할인 행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마트는 신품종인 ‘젤리마토’, ‘별마토’부터 전통 강자 ‘완숙토마토’, ‘방울토마토’ 등 총 16종에 달하는 토마토 전 품목을 행사카드 구매 시 20% 할인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젤리마토(450g)’와 ‘별마토(450g)’를 행사카드 구매 시 4720원에, ‘달짝이 토마토(750g)’를 6320원에, ‘대추방울토마토(1kg)’를 712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롯데마트도 합류... 더 뜨거워지는 최저가 전쟁

앱 스캔 결제 엘포인트 5배 적립

최근 유통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격 경쟁에 롯데마트도 뛰어들었다.

롯데마트는 15일부터 경쟁사의 최저가 전략에 대응해 추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롯데마트 GO’ 앱 스캔 결제 시 500개 생필품에 대해 엘포인트(L.POINT)를 5배 적립해준다고 14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대형마트들의 가격 정책상 생필품 가격차가 크지 않고 가격 비교에

대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일자별, 실시간 가격 대응이 아닌, 주단위로 가격 대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에 방문하는 고객은 500개 생필품을 동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쇼핑 시 매번 가격 비교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재우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고객들

의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유통 채널들 사이에서 가격에 대한 고민 없이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제약·바이오기업, 코로나에도 외형·내실 키웠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첫 단추 끼우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외형 성장은 물론 수익성도 확대하며 K바이오의 근간을 다지고 있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가운데 실적 추정치(컨센서스)가 있는 기업들은 모두 올해 1분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은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GC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씨젠이다.

지난해 업계 1위로 우뚝 선 셀트리온은 1분기에만 5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매출 컨센서스는 5110억 원으로, 전년 동기(3728억 원) 대비 37.07% 늘어난 규모다. 영업이익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 191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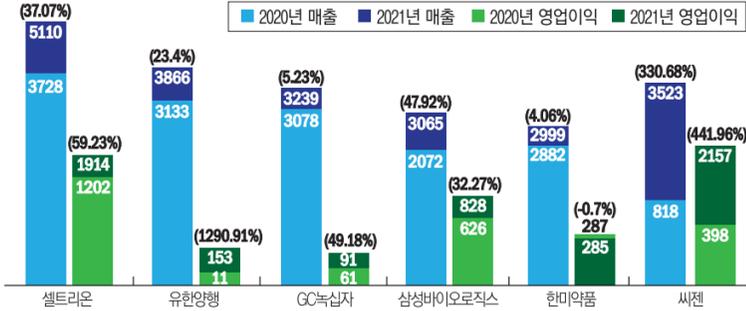
올해 셀트리온의 성장 동력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이다. 렉키로나주는 지난달 유럽의약품청(EMA)의 사용 권고 의견을 획득, 유럽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3번째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됐다. 셀트리온은 올해 최대 320만 도스의 렉키로나주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유럽 허가를 받은 유플라이마는 글로벌 1위 바이오의약품 '휴미라'의 고농도 바이오시밀러다. 가장 먼저 출시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아니지만, 휴미라 유럽 매출의 대부분이 고농도 제품에서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유플라이마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올해 연 매출 2조 원 돌파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성공하면 1조 클럽 입성 2년 만에 2조 원을 달성하는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분기 매출 3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집계됐다. 3공장의 매출이 지난해 4분기에 조기 인식되고, 1공장의 정기보수로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직전 분기 대비로는 일시적인 하락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는 매출과 영업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2021년 1분기 실적 전망 (단위: 억 원) ※ 출처: 에프앤가이드 ※ 컨센서스는 추정기관 3곳 이상 ※ ()는 증감률



셀트리온, 1분기 매출 37% 증가한 5000억 기대 삼성바이오로직스·유한양행 등 두 자릿수 성장 '코로나 신데렐라' 씨젠, 영업이익률 60% 육박

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할 전망이다.

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실적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분기를 저점으로 우상향할 것이라 관측이다.

유한양행도 지난해 1분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된다. 매출 컨센서스는 23.4% 증가한 38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기저효과로 10배 이상 대폭 성장할 전망이다.

그간 블록버스터 도입신약(상품)으로 외형 성장을 이어왔던 유한양행은 잇따른 가수수출 성공을 기점으로 상품이 아닌 연구·개발(R&D) 중심 기업으로 거듭났다.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허가를 받은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 등 자체개발 신약과 개량신약으로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는 블록 확대보다는 이익률이 높은 매출에 집중하면서 이익률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이익률이 높은 해외 원료의약품 사업도 3년에 걸친 마이너스 성장을 탈피, 올해부터 연간 10%에 가까운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C녹십자와 한미약품의 매출 컨센서스

는 각각 3239억 원, 2999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른 기업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한 자릿수 성장세다.

실적 비수기를 맞은 GC녹십자는 컨센서스 하회 우려도 불거진다. 한미약품은 중국 자회사 북경한미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희소식이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대상 기업 6곳 중 유일하게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집단 감염) 지속에 K 바이오 신데렐라로 떠오른 씨젠은 올해도 매출 1조 원 돌파가 유력하다. 씨젠은 연결기준 3월 매출이 1285억 원을 기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회사는 앞서 1월 1270억 원, 2월 966억 원의 잠정 매출을 발표, 1분기 잠정 매출이 3521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 컨센서스는 3523억 원으로 잠정 매출과 유사하다. 전년 동기(818억 원)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1분기 영업이익은 398억 원에서 2157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씨젠은 6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 세계가 백신 접종을 진행중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상 진단키트의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 전망 덕분이다. 유혜은 기자 euna@

“박미선 유산균”으로 갱년기 극복해요

휴온스 '엘루비 메노락토' 마케팅

휴온스가 갱년기 건강기능식품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엘루비 메노락토' 인기에 힘입어 소비자들과 교감하는 마케팅 강화에 나선다.

휴온스는 최근 '엘루비 메노락토'의 첫 얼굴로 방송인 박미선을 발탁해 TV 광고까지 선보이며 본격적인 마케팅 행보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엘루비 메노락토'의 주 소비층은 중년 여성으로, 모델 박미선을 통해 여성의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흡수성에도 직접 출연해 갱년기 극복 경험담을 공유하고 중년 여성들만이 겪는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브랜드와 소비자 간 친밀도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박미선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인 반



응은 '엘루비 메노락토' TV 광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TV 광고가 방송되자마자 '박미선 유산균', '박미선 갱년기 유산균'을 찾는 이들이 쇄도하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 안의 나를 깨우다'라는 콘셉트의 이번 광고는 여성 체내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발현을 활성화해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엘루비 메노락토'의 작용 원리를 알리는 동시에 스스로 힘을 키워 갱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박미선 기자 only@

한미약품 “포지오티닙, 복용법 바뀐 안정성 높여”

AACR서 추가 임상 발표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이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AACR(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미국암연구학회)에서 항암신약 '포지오티닙' 추가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스펙트럼은 EGFR 또는 HER2 Exon 20 삽입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에서 포지오티닙 1일 2회 용법(BID) 투여 시 1일 1회 용법(QD) 대비 우수한 안정성 및 내약성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데이터는 ZENITH 20으로 명명된 글로벌 임상 '코호트 5' 예비 데이터로,

'과거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EGFR 또는 HER2 Exon 20 삽입 변이를 동반한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의 포지오티닙 투여에 관한 연구'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1일 2회 용법으로 포지오티닙을 투여한 결과 내약성이 개선됐고 1일 1회 용법(QD)과 비교해 복용 중단률이 감소했다. 또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이 지속해서 줄었고 항종양 효과 활성화도 확인됐다.

프랑수아 레벨 스펙트럼 최고의료책임자(CMO)는 "여러 투여 용법 중 8mg씩 1일 2회 투여한(BID)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 낮은 부작용 비율이 확인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BEYOND GOLF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

外人 “Buy 코리아”에 ‘박스피’ 뚜껑 열리나

이달 들어 2조4000억 순매수 코스피 지수 120P 넘게 올라
저금리·홍보장 지친 개미, 해외투자 노크 증시 상승세 ‘발목’

#1. 10억 원대 금융자산을 굴리는 50대 자영업자 김주식 씨(가명). 3000선 초반에 머무는 코스피에 신물이 난 김 씨는 최근 해외 투자 비중을 더 늘렸다. “테슬라 주가에 거품이 있다”는 크레이그 어윈 로스캐피털 선임 애널리스트의 경고가 있었지만, 친환경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었다.

#2. 여의도에 근무하는 직장인 이대박 씨(가명)는 14일 현대모비스 주식에 1500만 원을 투자했다. 현대차그룹이 비상장 건설사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공개(IPO)를 계기로 ‘최대 난제’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돼서다.

코스피가 3000선 초반 ‘박스권’에 머물러 투자자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컴백에 ‘박스피’ 탈출을 기대하는 동학개미와 테슬라·애플 등 해외 주식을 늘리는 서학개미의 행보가 갈리고 있

는 것. 증시 전문가들은 “주식 투자의 본질은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또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알려주는 지표는 곧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다. 박스피라는 특징이 주식을 사고파는 척도가 될 수 없다”면서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주문한다.

◇외국인 ‘박스피’ 탈출 선발로 나설까=이달 들어 14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조3922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개인과 기관은 각각 2051억 원, 2조2689억 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사자’ 주문 덕에 코스피는 지난달 31일 3061.42에서 14일 3182.38까지 120포인트 넘게 올랐다.

사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외국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지난 1~3월 순매도액만 8조60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던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어가자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귀환으로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불안 요인을 제외하면 경제여건은 외국인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기 좋은 환경”이라며 “글로벌 경기의 회복 국면과 한국 수출 개선세와 코스피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진행 중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먼저 외국인이 끌어선 고점 3200포인트를 두드리고, 이후 개인이 밀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목표치를 3700으로 전망했다.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고려했을 때 한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는 게 주요 근거다.

국내 자산가들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초 삼성증권 예상자산 10억 원 이상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총 863명중 46.9%(405명)는 한국 주식시장의 향후 중장기 코스피 최고 전망치를 4000선으로 답했다. 36.2%는

3500선이라고 답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분기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코스피의 변동성을 자극했던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달러 강세 압력이 제어된다면 한국 증시가 주목받을 것”이라며 “한국의 차별적인 펀더멘털·모멘텀(상승동력)과 안정성에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원화 강세라는 트리거(방아쇠)가 외국인 순매수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 실적과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만으로는 한국 증시를 박스피에 가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비효율적 의사 결정을 초래하는 규제와 반칙이 한국 증시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실제 정경유착의 부패와 기업인에 대한 단죄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마다 증시는 맥을 못 쳤다.

◇“한국시장 못 믿겠다” 해외 직구액 최고=계속된 저금리 기조와 박스권에 머무는 국내 증시에 지친 개인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해외 주식·채권 등에 대한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분기 예약원을 통한 해외주식 결제금액(매수+매도금액)이 1285억1000만 달러(약 144조1000억 원)로 직전 분기(654억 달러) 대비 96.5% 증가했다. 이는 통계 집계기 시작된 2011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 주식 결제금액이 1198억9000만 달러(134조4000억 원)로 전 분기보다 98.7% 증가했다. 이는 전체 해외주식 결제 규모의 93.3%를 차지하는 규모다.

종목별로는 테슬라(118억7000만 달러), 게임스톱(52억 달러), 애플(38억6000만 달러), 스팩(SPAC) 기업 처칠캐피탈(25억7000만 달러), 빅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21억8000만 달러) 등 미국 주식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증시 전문가들은 “기업 가치를 따져보고 다시 분석해서 기업의 가치로 사고파는 마켓 타이밍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유혜림 기자 wiseforest@

“큰 차이 없다” 대기업에 밀리는 그린뉴딜 ETF

주요 기업들 포함 차별성 없고
운용 수수료 높아 경쟁력 부족
지수 수익률, 코스피보다 낮아

금융투자업계 ‘친환경 투자’가 화두가 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은 잇따라 ‘그린뉴딜 ETF’를 내놨다.

하지만 해당 ETF의 구성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사실상 시총 상위종목으로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다르지 않다. 다양한 운용전략을 갖춘 ‘친환경 ETF’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는 연 초 이후 9.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기간 코스피 지수 수익률(10.3%)을 하회한다. 해당 지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 펀드 등의 기초지수로 쓰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향후 지수 기반 운용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들이 투자 비중을 높이고자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선다.

실제 지수 출시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내놨다.

하지만 해당 지수는 시총 상위기업을 추종하는 ETF와 차별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운용 수수료는 더 높았다. 자산운용사의 ‘그린뉴딜 ETF’가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요인

탄소효율 ETF			코스피200 ETF		
순위	종목명	비중(%)	순위	종목명	비중(%)
1	삼성전자	29.12	1	삼성전자	30.82
2	LG화학	3.79	2	SK하이닉스	6.09
3	SK하이닉스	3.64	3	NAVER	3.82
4	NAVER	3.39	4	LG화학	3.11
5	삼성SDI	2.68	5	삼성SDI	2.76
6	현대차	2.45	6	셀트리온	2.6
7	셀트리온	2.17	7	현대차	2.53
8	기아	2.13	8	POSCO	1.76
9	현대모비스	1.55	9	기아	1.67
10	KB금융	1.36	10	현대모비스	1.51

※ 4월 13일 TIGER ETF 기준

으로 작용하는 것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린뉴딜 ETF 중 가장 규모가 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삼성전자가 29.12% 비중으로 편입돼 있다.

다음으로 LG화학(3.79%), SK하이닉스(3.64%), NAVER(3.39%), 삼성SDI(2.68%), 현대차(2.45%), 셀트리온(2.17%) 순으로 투자하고 있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은 3.55%이고, 총 보수는 연 0.09%다.

이는 코스피 대형주를 추종하는 코스피200 ETF와 다르지 않다. TIGER 200 ETF의 경우 삼성전자(30.82%), SK하이닉스(6.09%), NAVER(3.82%), LG화학(3.11%), 삼성SDI(2.76%), 셀트리온(2.60%), 현대차(2.53%) 순으로 자산을 편입하고 있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은 3.22%, 총 보수는 연 0.05%다.

해외 운용사가 만든 친환경 ETF를 보면 편입 종목의 특수성과 성과가 확연히 드러난다.

블랙록이 운용하는 ‘iShares S&P Global Clean Energy ETF’는 30개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을 담았고, first trust의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ETF’는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하는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다. 테슬라(8.76%), NIO(7.28%), ENPH(6.49%) 등 저탄소 기업을 골고루 담았고, 최근 1년 수익률은 187.9%로 해당 기간 나스닥 지수 수익률(64.4%)을 크게 아웃퍼폼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ETF 규모 확대가 기업의 탄소저감조치도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다양한 전략의 친환경 ETF를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영지 기자 eom@

단기과열 종목 지정 ‘제 역할’ 못해

“체결 제한으로 신중 투자 유도”
제도 취지 무색 주가·거래 폭증
셀리드·신화실업 투자릿수 상승

국내 주식시장 내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단기과열 종목 지정에도 주가, 거래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실시간 주문 체결을 막아 신중한 투자를 환기하려는 의도지만, 안정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중에서도 셀리드는 21.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화실업(13.01%), 대호특수강우(7.63%), 일성건설(0.96%), 계양전기(0.71%) 등도 올랐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이란 개인투자자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요건에 충족할 경우, 단일이 매매를 적용하는 제도다. 우선 단기과열 종목 지정을 예고한 후, 10거래일 이내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3일 동안은 30분 간격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이 매매로만 거래할 수 있다.

지정요건은 △당일 증가가 직전 40거래일의 평균 증가 대비 30% 이상 상승한 경우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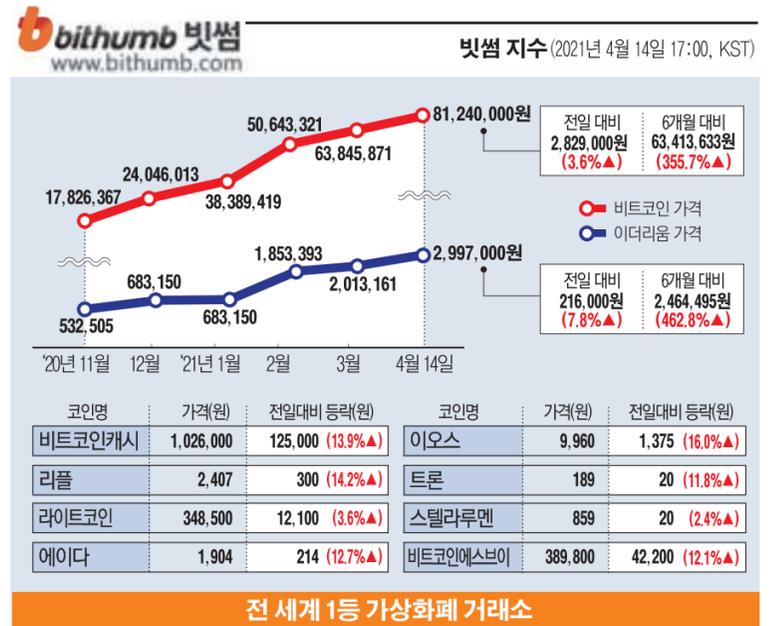
거래일의 평균 회전율의 500% 이상 증가한 경우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종 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종 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늘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주가, 회전율, 변동성 등이 급변할 경우,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최근 증시에서는 테마주, 우선주 등이 대거 단기과열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거래량, 유통주식 수가 적어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주식들이다.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실시간 거래 체결을 제한한다.

지난해 12월 우선주 주가가 급등하며 단기과열 종목에 지정되기도 했다. 오는 15일 흥국화재우, SK증권우, 금강공업우, 녹십자홀딩스2우, 대원전선우, 동양우, 롯데지주우, 서울신포우 등 13개 종목이다. 16일에는 신화실업, 대호특수강우, 일성건설 등이 단기과열 종목 지정에서 해제된다.

단기과열 종목 해제 후 주가 변동 폭이 더욱 커지기도 한다. 지난 3월 18일 한화투자증권우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후 26일 해제됐고, 이달 2일 다시 지정됐다. 두나무 관련주로 여여 3월부터 현재까지 494% 가량 급등했다. 윤석열 관련주로 역시 언덕성우도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다시 지정됐고, 현재까지 130% 가량 뛰었다.

이인아 기자 ljh@



KTB투자증권, 유진저축은행 지분 인수

KTB투자증권은 14일 이사회를 통해 유진에스비홀딩스 30.0%에 해당하는 지분 인수를 결의했다. 계약 체결은 다음달 15일 예정이다.

KTB투자증권은 유진제사호해라클레스PEF가 보유한 유진에스비홀딩스 RCPS(상환전환우선주) 1293만 주를 인수하기로 했다. 유진에스비홀딩스는 유진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취

득금액은 732억원이나 최종 매매대금은 실적 결과 및 매매대금 협의과정에서 차후 정산되는 금액을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인수 절차에 따라 실사를 진행한 후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1972년 설립한 유진저축은행은 총자산 규모 2조9842억원(지난해 말 기준)의 업계 7위권 대형 저축은행으로 강남 본점을

비롯해 목동, 송파, 분당 등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19억 원으로 업계 5위권이며, BIS 비율은 16.3%로 적정기준을 크게 넘어선다.

KTB금융그룹은 유진저축은행을 품에 안으면 소매금융부문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히게 됐다.

증권·자산운용·네트워크(VC)·PE·신용정보 등 기존 편제에 저축은행을 더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다. 그룹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가능하다.

박기영 기자 pgy@

서울 '분양 가뭄' 원베일리·둔촌주공 하세월

올해 4만5000가구 예상됐지만 1분기 겨우 945가구 공급
조합·종교시설 문제 등 사업 지연... 청약시장 과열될 듯

서울 분양시장이 공급 절벽에 빠졌다. 올해 서울 분양시장엔 17년 만에 최다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1분기에 나온 물량은 고작 1000가구에 그쳤다. 여기다 재건축 대어(大魚)들마저 분양가 책정 등의 문제로 연내 분양이 물 건너 갈 가능성이 커져 '분양 가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분양시장에는 약 4만4907가구(총 가구수 기준·임대 포함)가 쏟아진다. 2004년(4만5973가구)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작년(4만2125가구)보다는 3000가구가 가까이 늘었다.

강동구 고덕강일 제일풍경채(780가구)와 광진구 자양 하늘채베르(165가구)를 비롯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2990가구) △은평구 센트레빌 파크프레스티지

(역촌1구역 재건축·752가구) △성북구 장위10구역 푸르지오(2004가구)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1만2032가구)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2636가구)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만 6곳이다.

하지만 4만5000가구가 올해 서울 분양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 1분기에 청약시장에 나온 서울 분양 물량은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와 광진구 자양 하늘채 베르 단 2곳으로 945가구뿐이다.

연내 분양이 예정된 대어들도 분양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둔촌주공은 올해 10월로 잡힌 일반분양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직무대행 체제인 조합이 이달 초 총회를 열어 새 조합장을 선출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

올해 서울 주요 분양예정물량 (단위: 가구)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
광진구 자양동	자양하늘채베르	165
관악구 봉천동	관악중앙하이츠포레	82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2990
성북구 장위동	장위10구역푸르지오	2004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1만2032
송파구 잠실동	잠실진주아파트	2636
강남구 삼성동	삼성홍실	419
구로구 개봉동	개봉5구역	317

* 출처: 부동산114



으나 구 조합의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장위10구역에선 조합과 구역 내 종교시설의 분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주를 마치고도 건축심의 문제로 착공을 하지 못했던 잠실 진주아파트는 지난해 심의가 통과되면서 숨통이 트였지만 관리처분 변경 인가와 조합원 동호수 추첨

분양시장에 나오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34가구 뿐"이라며 "둔촌주공 등 알짜 단지들이 대거 빠지면 올해 서울 총 공급량은 3만 가구를 크게 밑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나마 래미안 원베일리가 빠르면 이달 말 분양시장이 나올 것으로 정비업계는 보고 있다.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설계 변경안 총회 상정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되면서 기존 일정대로 움직일 수 있게 돼서다. 하반기엔 은평구 대조1구역(1971가구)과 중랑구 중화 1구역(1055가구) 등이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이 쪼그라들면서 서울 청약시장은 더 과열될 것으로 관측한다. 지난달 나온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와 자양하늘채 베르는 1순위 청약에서 모두 세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청약 대기 수요가 기존 주택시장으로 눈을 돌려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무주택자·청년 대출 문턱 더 낮아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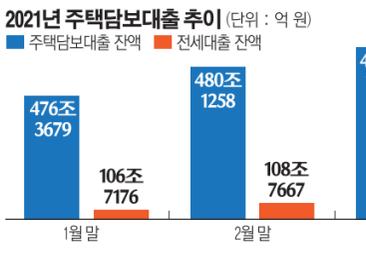
선거 참패 與 '부동산 민심잡기'
"LTV·DTI 90%로 풀자" 주장도
"추가 완화 땀 시장 요동... 신중"

차기 여당 지도부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한목소리이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 포함 전망

정부와 여당이 무주택자와 청년 등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에선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 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다만 추가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숨고르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쭉날쭉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언제든지 집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이 첫 주택을 사면 확실한 LTV와 DTI 규제 완화를 통해 집을 사들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TV와 DTI 90%로 확 풀겠다"며 대출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당권 도전에 나선 홍영표 의원 역시 이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실수요자,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는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한다"며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박원주의원은 전날 연설회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수정을 약속했다.

이렇듯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다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자리를 모두 여당에 내줬다. 지난해 집값 급등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비리 영향으로 부동산 민심을 잃은 탓이다.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안은 이달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6일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무주택자 대상 LTV·DTI 규제 추가 완화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과 무주택자 LTV 규제 비율 10%포인트(P) 추가 완화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선 현재 LTV와 DTI 40~50%가 적용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기존 LTV·DTI 우대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 9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10%까지 LTV와 DTI를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달 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8억2057만 원에 달한다. '6억 원 이하' 주택 요건은 현실에 맞지 않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주택자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은 무리수"라며 "안정된 직업과 소득이 있는 대출 수요자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이달 분양 교통·학군 우수, 편의시설 풍부

현대엔지니어링은 충남 아산시 아산모종1지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7층, 9개 동, 927가구로 이뤄졌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74㎡ 194가구 △84㎡ 622가구 △99㎡ 111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판상형 및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다. 넉넉한 수납공간을 위해 펜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이 제공되고 '힐스테이트'만의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입주민의 다양한 야외 활동을 위해 커뮤니티 광장이 조성된다. 테마실터,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로는 입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 휘트니스센터와 GX(요가실), 골프연습장 등이 갖춰진다.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도 들어선다.

교통 여건도 좋다.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천안아산역(KTX)이 가까워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버스정류장이 단지와 인접해 있고, 온천대로를 통해 아산 도심 및 천안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21번 국도, 45번 국도를 이용한 수도권 및 천안, 당진 등 인접 도시



접근도 용이하다.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는 아산 모종지구 중심 입지로 교육 및 생활 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 옆에 신리초와 모종동학원 등이 있다. 온양여중·고, 한울중·고도 가깝다.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이마트·롯데마트·하나로마트·롯데시네마 등이 도보 거리에 있고, 온천시장·관곡시장이 가깝다. 충무종합병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주민센터, 관공서 등도 인근에 있다. 한마을 야구장과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이용하기도 쉽다. 창포관락지생태공원, 아산곡교천야영장 등도 가까이 있다.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견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하는 2023년 하반기 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주택 규제 반사이익" 서울 수익형 부동산거래 최다

1분기 4209건·9조 매매

올 1분기 서울지역 수익형 부동산(상가, 사무실 등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가 동기(同期) 기준 사상 최다치로 늘어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에서 신고된 수익형 부동산 매매 계약은 4209건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된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많은 거래다. 거래액도 9조1874억 원으로 1분기 기준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해(6조2023억 원)와 비교해도 3조 원 가까

이 늘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와 풍부한 유동성 장세,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중에 돈은 풍부해지고 예·적금 매력은 낮아졌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시장 진입 문턱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면서 대출 규제도 덜한 수익형 부동산 매력이 커진 건 이런 배경에서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 성장을 주도한 건

업무시설이다. 올 1분기 서울 지역 업무시설 거래액은 2조408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1676억 원)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반면 판매시설 거래액은 3783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8102억 원에서 반 토막 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출이 줄고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공실 위험성이 커진 탓이다.

여 연구원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에게 "주택에 비해 현금성이 떨어지고 경기상황에 따라 수익률에 부침이 커 꼼꼼하게 실익을 따진 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현대건설, 싱가포르 1700억 변전소 공사 수주

현대건설은 1700억 원 규모의 싱가포르 SP그룹 라브라도 오피스 타워 1단계 및 변전소·관리동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발주처인 싱가포르 SP그룹으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한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 SP그룹은 싱가포르 최대 전기 및 가스 배급회사다. 지난해 말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싱가포르 전동화 생태계 구축 및 배터리 활용 신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싱가포르 서남쪽 파시르 판장(Pasir Panjang) 지역에 지

하 4층 규모의 지하변전소 및 지상 5층 규모의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이다. 또한 추후 발주될 34층 규모 오피스 타워의 기초공사(흙막이 및 파일 공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대지면적은 2만3375㎡, 연면적은 9만5457㎡로 4월 착공하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3개월이다.

총 공사금액 약 1억5000만 달러(약 17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공사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해당 부지에 230kV 지하변전소 부지정지 및 지하공사(약 875억 원 규모)를 진행 중이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되면 부모, CCTV '원본' 열람 가능

워킹맘 A씨는 최근 3살 자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소아과 의사의 상담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됐다. 이에 어린이집에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지만, 자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보호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개정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어린이집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CCTV 영상원본 열람을 다시 요구했고, 그 결과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호자에 편집 안 된 화면 공개 외부 반출엔 '모자이크' 거쳐야 정보보호위 '가이드라인' 마련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이다. 지난 2~3월 중 법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고 의심될 때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 방법 및 서식, 열람 장소·일시의 통지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 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보호자가 CCTV 영상원본을 임의 공개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하여 해소한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일본 오염수 방출' 규탄

14일 오후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총연합회 등 수산단체 관계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

“복부 치명상 가해 살인 미필적 고의”... 양부 징역 7년 6개월

생후 16개월의 영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판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데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 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부 안 씨도 장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장 씨의 지속적인 폭행은 인정하지만, 사망 당일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이 누적된 단순 폭행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장 씨가 정인 양을 숨지게 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부검의와 감정의 등을 증인으로 세웠다.

첫 공판일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교수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정인 양의 사망 원인을 재검정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 양의 팔이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비틀어져 으스러졌다고 설명했다. 대장과 소장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두 차례 이상 발로 밟힌 것 같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김종용 기자 deep@

5000억 쏟아붓고도 '산재사망' 역주행

지난해 27명 늘어난 882명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7명 늘어난 882명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목표치(725명 이하) 달성은 실패로 끝났다.

정부가 지난해 5000억 원이 넘는 산재 예방 예산을 투입해 산재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제조업(합산기준)에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했음에도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 발목을 잡았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산재 사고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882명으로 전년보다 27명 증가했다.

이중 건설업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30명 늘어난 458명(이중 추락사망 236명)이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51.9%에 달하는 수치다. 제조업 사망자는 5명 감소한 201명(이중 끼임사망 60명)이다.

전체 사고사망자 882명 중 50세 이상이 72.4%(639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이 39.3%(347명)를 차지했다. 특히 60세 이상 사고사망자는 전년보다 62명 증가해 전체 사고사망자 증가폭(27명)을 상회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자는 94명(전년대비 10명 ↓)으로 전체 10.7%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714명(전년대비 54명 ↑)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산재사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업무상 질병 사망 근로자 수는 1180명으로 전년보다 15명 늘었다.

정부는 작년 이전 물류창고 화재사고(38명 사망) 영향 등으로 산재 사망자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주 산재사고 업종인 건설·제조업에서 사망자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산재사망 주요인인 건설업 추락·제조업 끼임 사고를 집중점검 대상으로 삼고 안전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산재 예방 예산을 2017년 3768억 원에서 2020년 5134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패트롤(순찰)카' 같은 특별 대책도 도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내년 산재 사망자 505명 감축 달성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관측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Gary Armstrong
Philip Kotler
Marc Oliver Oprešnik 지음
정연승·박철·이형재·조성도 옮김
600쪽 | 값 38,000원

마케팅의 아버지, 코틀러 교수의

최고의 마케팅 솔루션!

“돈 버는 기업들은 마케팅 계획이 다 있구나!”

★★★★★

세계적인
마케팅 입문서
Marketing: An Introduction
14판
번역서 출간

디지털 시대,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 읽기
: 고객가치와 고객참여를 통한 관계 구축

고객감동을 실현한 기업에는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목차

PART 1 마케팅 정의 및 마케팅 프로세스 1 마케팅: 고객가치와 고객참여의 창출 | 2 기업전략과 마케팅전략: 고객참여, 가치, 관계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PART 2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 3 마케팅환경의 분석 | 4 마케팅정보의 관리: 고객통찰력 얻기 | 5 소비자와 기업구매 행동의 이해

PART 3 고객가치지향적 전략과 믹스의 설계 6 고객가치지향적 마케팅전략: 표적고객을 위한 가치창출 | 7 제품, 서비스, 브랜딩 전략: 고객가치 구축 | 8 신제품 개발: 그리고 PLC의 관리

9 가격결정: 고객가치의 이해와 포착 | 10 마케팅 경로: 소비자 가치 전달 | 11 소매업과 도매업 | 12 고객참여와 고객가치 커뮤니케이션: 광고와 PR

13 인적판매와 판매촉진 | 14 다이렉트, 온라인, 소셜 미디어, 그리고 모바일 마케팅

PART 4 마케팅 영역의 확대 15 글로벌 마켓 | 16 지속가능한 마케팅: 사회적 책임과 윤리

교문사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16 | 전화 031-955-6111~4 | 팩스 031-955-0955 | genie@gyomoon.com



Dr. Different



“농식품 투자생태계 만들어 유니콘기업 나오게 할 것”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숙원사업 투자지원센터 설립 ‘가온누리 인베지움’ 문 열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1807억’ 조성

“세상의 중심을 뜻하는 순우리말 ‘가온누리’에 투자(investment)와 박물관(museum)의 합성어인 ‘인베지움’을 붙여 ‘가온누리 인베지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농식품 경영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 원장은 취임 1년 사이 숙원 사업이었던 농식품 분야의 투자지원센터 설립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가온누리 인베지움’의 가장 큰 목표는 농식품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민 원장은 “가온누리 인베지움을 통해 농식품 경영체들을 위한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망 경영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농식품 투자 지원 업무를 강화할 수 있다”며 “한국농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이끌어내 농식품 분야의 창업 생태계 조성하고 농식품기업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

대했다.

가온누리 인베지움은 투자자와 농업 경영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투자 지원을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농업 경영체에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체질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은 농산업을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해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다. 농금원은 지역 기반 센터도 구축해 투자 생태계를 확장할 방침이다.

민 원장은 “농식품펀드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은 41.5%로 수도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지역센터를 통한 농식품기업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확대하고, 센터를 거점으로 유관기관, 농식품 기업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투자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농금원은 꾸준히 성과를 올렸다.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농식품모태펀드는 농식품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끌어냈다.

민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투자시



민연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농식품 투자지원센터인 ‘가온누리 인베지움’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이 경직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모태펀드는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인 1807억 원을 조성하며 농식품 분야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올해에도 흐름을 이어 출자산업을 확장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금원은 올해 첫 정기 출자사업을 통해 14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이후에도 지역 특성과 펀드 등 회수재원을

활용한 수시 출자사업도 계획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식품 일반펀드에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민 원장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기존 결성펀드에서 연차별 누적 의무투자 비율 5%포인트 초과 투자 실적을 달성한 운용사를 대상으로 차기 출자사업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기존 컨설팅·마케팅 프로그램을 확대해 펀드 투자기업의 만족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외부전문위원과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한 투트랙 방식으로 현장코칭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사업설명회(IR)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분야전문가·투자자·경영체 간 교류의 장을 여는 ‘잇업데이’ 등을 통해 투자 연계 성공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 원장은 “투자 받는 기업을 예비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집중 추진해 컨설팅 분야와 횡수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벤더사를 통한 수출상담회를 열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겪는 해외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류현진 빅리그 통산 60승
MLB닷컴 “양키스 압도”



6%이닝 1실점 非자책, 시즌 첫 승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완벽한 투구로 시즌 첫 승과 함께 빅리그 통산 60승 고지를 밟았다.

류현진은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TD플라크에서 열린 2021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4피안타 1볼넷 7탈삼진 1실점(비자책점)으로 팀의 7-3 승리를 이끌었다. 류현진은 올 시즌 세 번째 등판 만에 첫 승을 기록하며 시즌 평균 자책점을 2.92에서 1.89로 끌어내렸다. 류현진은 2일 양키스와의 개막전에서 5%이닝 2실점, 8일 텍사스 레인저스전에서 7이닝 2실점을 거두며 호투를 보였지만, 토론토 타선 부진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시즌까지 59승 35패를 기록했던 류현진은 1승을 추가하며 한국 선수로는 박찬호에 이어 두 번째로 MLB 60승 고지를 밟았다. 2013년 MLB 무대를 밟은 지 8년 만이다.

류현진이 ‘거함’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는 부신 호투를 펼치자 외신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류현진이 7회까지 자책점을 한 점도 내주지 않았다”며 “토론토 타선은 2회부터 5회까지 매 이닝 득점에 성공하며 류현진을 뒷받쳤다”고 전했다. 메이저리그(MLB) 공식 사이트인 MLB닷컴은 “류현진이 양키스를 압도했다”는 한마디로 이날 경기를 정리했다. 토론토 구단 역시 경기 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SensACEional’ (센세이션+에이스)이라는 표현으로 에이스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다. 김재영 기자 maccam@·사진 AP연합뉴스

인사

◆산림청 ◇서기관 승진 △법무감사담당관실 송영림 △법무감사담당관실 조성동 △운영지원과 정호영 ◇기술서기관 승진 △법무감사담당관실 정연국 △정보통계담당관실 이수성 △산림복지정책과 심양수 △산림방지와 최상록 △산림병해충방제과 윤찬균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 김진

◆한국경제TV ◇승진 △부국장 이성경 △보도본부장 정경필 △ 기획제작 1부장 이계우 △ 기획제작3부장 김태일 △ 대외사업부장 박정운 △비즈니스본부 광고마케팅부 뉴미디어광고팀장 박준식(부장급) △경영기획실 총무부장 박상근 ◇전출 △와우에스앤에프 대표이사 김경식

부음

▲조병오 씨 별세, 조성환(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사장) 씨 부친상= 1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17일, 02-3010-2000(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이명운 씨 별세, 이주형(CMG제작 대표) 씨 부친상= 14일,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031-780-6170

BTS 소재 인종차별 코미디
칠레 공중파 방송 결국 사과



방탄소년단(BTS)을 소재로 삼아 인종차별성 코미디로 질타를 받은 칠레 방송사가 결국 사과했다. 칠레 공중파 채널인 메가TV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자사 코미디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마음 상한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표시하면서 사과를 전한다”고 말했다. 메가TV는 “어떤 커뮤니티도 모욕하거나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계속 개선하고 배우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10일 방송된 메가TV의 코미디쇼 ‘미 바리오’(Mi Barrio) 중 한 코너였다.〈사진〉 토크쇼에 5명으로 이뤄진 보이밴드가 출연한 설정이었다. 진행자가 소개를 부탁하자 한 멤버가 ‘김정은’이라고 답하고 이어 나머지 멤버들이 ‘김정-도스’(Dos·스페인어로 숫자2), ‘김정-트레스’(Tres·3), ‘김정-콰트로’(Cuatro·4), ‘후안 카를로스’라고 소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름의 영어 표기 중 ‘은(Un)이 ‘1’을 뜻하는 스페인어와 같다는 것을 활용한 것이다. 진행자가 진짜 이름이 뭐냐고 재차 묻자 이들은 차례로 뷔, 정국, 아구스트D, 제이홉, 진이라고 말하며 BTS를 패러디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묻자 멤버 중 한 명만 할 수 있다고 답했고, 한마디해 달라는 요청에 중국어 억양과 비슷한 의미 없는 말들을 길게 늘어냈다. 해석을 부탁하자 “나 백신 맞았어”라는 뜻이라며 엄지를 치켜들고 웃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명백히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발언이었다.

방송사 측은 이튿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칭찬도 비판도 모두 수용하겠다”며 원론적인 반응만 내놨지만,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혜리 기자 hyeri@

한산소곡주 우희열 대표 ‘4월 농촌융복합산업인’

‘얇은뱅이 술’ 1500년 전통...지역농가와 年 120톤 계약재배

1500년 역사의 백제 전통주인 한산소곡주의 명맥을 이어가는 ‘한산소곡주’ 우희열(사진)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4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선정됐다.

우 대표는 1979년 무형문화재, 1999년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 한산소곡주를 제조하고 있다.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원료를 조달하고, 전통주를 제조·가공하며, 술빚기 체험 등을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도 운영 중이다. 한산소곡주는 60여 지역 농가와 15년 이상 장기 계약재배를 통해 약 120톤의 멥쌀과 찹쌀을 조달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로 ‘소곡주의 제조방법’ 특허 및 ISO 품질경영 인증

을 획득해 장기보관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다는 ‘얇은뱅이 술’로 유명한 한산소곡주는 각종 세계 대회에서 수상하며 전통주 보편화에 기여했고, 트렌드에 맞는 저도주·소용량 제품을 출시, 이커머스에 입점하며 코로나 시대에도 매출이 늘었다. 지난해 매출액은 42억 5700만 원에 이른다. 또 체험객들이 자신이 직접 빚은 소곡주를 향아리에 담아 집에 가져가 100일 후 시음하는 ‘소곡주 발효 100일 체험’ 등 찾아가는 양조장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구자열 무역협회장 “공급망 재편, 정부 차원 대응 필요”

이호승 靑 정책실장 만나 서비스 산업 규제혁신도 요청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무역·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구 회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위한 주요국의 움직임에 정부 차원의 대응을 당부했고, 이 실장은 무역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화답했다.

구 회장은 1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약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구 회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와 자국 내 생산시설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등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면서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산업·통상 혁신전략을 고민하고 민관이 긴밀히 소통해 선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 회장은 “산업구조 대전환 시기에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비스산업의 규제혁신과 기업인

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은 우리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며 “무역협회가 전달한 의견은 진지하게 검토해 답변하겠다. 앞으로 협회가 주관하는 기업간담회에도 열심히 참석해 무역업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화답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전경련, K-ESG 얼라이언스 발족
초대 의장에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K-ESG 얼라이언스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김윤(사진) 삼양홀딩스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계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이 부는 가운데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의 전전한 ESG 경영 확산과 글로벌 ESG 사업



우 대표는 “서천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에 매장을 설치해 소비자 저변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오른쪽부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안일환 경제수석.



추진한다.

K-ESG 얼라이언스는 위원 구성절차를 거쳐 5월 중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열 예정이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글로벌 사업으로는 글로벌 ESG 콘퍼런스, 글로벌 기관투자자 대상 ESG 투자설명회 등을

자본시장 속으로



이대우 로보어드바이저문 대표

손자병법의 가장 유명한 구절인 지피지기(知彼知己)에 관한 내용을 투자론으로 보면 시장을 알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투자는 위태롭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장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으나,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승률이 50%이며, 시장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투자해서 매번 반드시 위태로운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손자병법은 2500년 전(기원전 6세기) 춘추(春秋) 시대와 전국(戰國) 시대 사이에 쓰여진 현존하는 중국 최초의 병서다. 손자병법의 주해에 가장 공을 들인 조조(曹操)는 기존의 손자병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 내면서 정밀한 주석을 달았다. 현재는 근대사에 영향을 미친 나폴레옹, 처칠, 맥아더, 마오쩌둥, 호찌민 등의 인물이 항상 곁에 두고 있던 책으로 더 유명하다.

조조가 붙인 주해에 따르면 손자병법 제 1편은 시계(始計)편으로 시작하기 전에 계산을 먼저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 주식투자인구가 성인기준 9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되물어보게 된다. 투자론의 관점에서 손자병법 원문의 일부를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제(齊)나라(현재의 산둥성, 당시의 선진국) 손자는 29세에 오(吳)나라 합려(闔閭)에게 자신이 쓴 병법서를 브리핑하면서 첫 서두를 이렇게 꺼낸다. 孫子曰,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

察也(손자왈, 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전쟁터는 병사의 생사가 달린 곳이며, 나라의 존재와 멸망이 정해지는 길이므로 반드시 세심히 살펴야만 한다는 뜻이다. 투자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투자라는 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한 국가든 가장 중대한 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세심하게 살펴야만 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주식(금융자산)과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면서 승산을 계산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투자하기 전에 투자의 승산을 간편하게 미리 알 방법에 대한 고민을 누구나 하지만, 손자는 간단하게 5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知可以與戰, 不可以與戰者勝(지가이여전 불가이여전자승, 싸울 수 있을 경우와 싸울 수 없는 경우를 아는 자는 승리하고). 현재 상승국면인지, 하락국면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 識眾寡之用者勝(식중과지용자승, 많은 병력일 경우의 전술과 적은 병력일 경우의 전술을 아는 자는 승리하고). 현재 투자금액을 어느 업종과 어느 종목에 어떤 비중으로 투자할 것인지 계획해야 한다.

세 번째, 上下同欲者勝(상하동욕자승, 상하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고). 장기 시계열과 중기 및 단기 시계열을 어떻게 결합해서 분석할 것인지 고민한다.

네 번째, 以虞待不虞者勝(이우대불우자승, 조심하여 경계하면서 적이 경계하지 않기를 기다리는 자는 승리하고). 시장의 변곡까지는 신중히 기다려서 정확한 타이밍에 투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將能而君不御者勝(장능이군불어자승,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간섭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실전에서 매수를 검토하는 중에도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 매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철저하게 계산에 근거하여 승산을 따지되, 톱다운(TopDown) 방식에 근거하며, 시장의 상태를 분석하고 어느 국가와 어떤 업종에 자산을 배분할지 결정하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투자의 사결정을 내릴 것이며,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손자병법에 물과 관련된 구절인 水之行(수지행), 避高而趨下(피고이추

하) 水因地而制流(수인지이제류) 故兵無常勢(고병무상세) 兵之形(병지형), 避實而擊虛(피실이격허) 兵因敵而制勝(병인적이제승) 水無常形(수무상형) 能因敵變化而取勝者(능인적변화이취승자), 謂之神(위지신)이 있다. 투자는 마치 물과 같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며, 시장의 변화에 순응하여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것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손자병법의 가장 유명한 구절인 지피지기(知彼知己)에 관한 내용을 투자론으로 보면 시장을 알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투자는 위태롭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장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으나,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승률이 50%이며, 시장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투자해서 매번 반드시 위태로운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투자라는 먼 여행을 시작한 우리는 종목보다 시장의 흐름에 충실해야 한다. 투자하면서 길을 잃지 않고, 물과 같이 시장에 순응하여 승산(勝算)있는 투자계획을 할 때다.

CEO 칼럼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스마트홈, 서비스 로봇, 바이오 헬스, 자율주행차 등 산업과 일상에서 인공지능(AI) 접목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합한 세계 AI 시장은 2025년까지 매년 38.4% 성장해 1840억 달러(약 204조 원) 규모로 커진다. 분야별 매출 비중은 머신러닝 39.1%, 컴퓨터 비전 23.6%, 자연어 처리 24.9%, 상황인지 컴퓨팅 12.4%다. 미국 기업이 시장의 30.7%를 차지하고 중국, 영국 등이 따라가고 있다. 세계 AI 시장은 풍부한 빅데이터를 가진 구글, 페이스북, IBM 등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가 AI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국방수권법을 통해 AI를 육성하고 있다. 연구투자, 연방 컴퓨팅 및 데이터 리소스 활용, 기술표준 수립, 인력 확보, 동맹국 협력 등 AI 정책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6조 원을 AI 연구개발에 투

자하고, 별도로 국립과학재단, AI 슈퍼컴퓨터 운영,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등에도 6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컴퓨팅 인프라는 AI 연구자가 사용하기 쉽게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자율차와 스마트 가전용 AI 칩 개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용으로 테슬라와 애플은 각각 AI 칩을, NEC는 카메라 영상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 베어링은 AI로 선박의 운항관리를 최적화한다. 이스라엘 드라이브즈와 일본 NTT계열 에넷트는 공동으로 전기차 충전용 AI로 원격제어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프로세스 설계업체 ARM을 인수하여 AI 칩 역량을 강화했다. 구글과 페이스북도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AI를 결합한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도 AI는 병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AI 기업 간의 협업도 늘고 있다. 미국 메타웨이는 신경망을 이용한 안테나를

미 공군 전동 수직 이착륙기의 센서 시스템에 탑재한다. 독일 바이엘은 미국의 AI 기반 신약 스타트업 리커전과 섬유성 질환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은 중국의 AI 음성·이미지인식 기업 아이플라이텍과 공동으로 AI 인재를 양성한다. 휴온스는 AI 신약개발 기업인 팜캐드와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한다.

AI는 지금 모든 산업에서 발전 단계와 기술 수준과는 관계없이, 기존의 가치사슬 영역과 융합하는 공통 자산이 되고 있다. 전통적 산업 현장에서의 AI 모니터링은 정밀화, 실시간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각각 정부와 기업은 AI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윤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윤리 원칙을 마련 중이다. 소니는 자사의 제품 개발에 AI 윤리 심사를 도입하고, 구글과 IBM도 AI 윤리를 적용하고 있다. 카카오, 삼성전자, SKT, KT 등도 AI 윤리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국내 AI 시장 규모가

2018년 1조 원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38.4% 성장해 10조5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기업 활동을 보면, KT와 LG전자의 협의체인 'AI원팀'은 사업화에 치중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현대중공업그룹, 카이스트, 한양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SK텔레콤과 카카오는 상호 지분교환을 해 협업으로 인프라, 데이터, 언어모델 등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AI 업체 중에 세계적인 기업은 아직 없다. 더 많은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가 절실한 이유다. AI 생태계 특구를 데이터센터, AI 슈퍼컴퓨터와 묶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에 들어설 국가 AI 융복합단지에는 데이터센터, 컴퓨팅 자원, 창업·연구·인재 양성 인프라, 세계 수준급 AI 데이터센터, 실증 시설 등이 들어선다. 울산과학기술원 산학융합캠퍼스도 AI 생태계를 조성한다. AI 특구를 지방 산업거점 도시로 더 많이 확대하면 할수록 국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명대까지 급증하면서 정부가 결국 자가검사키트의 도입을 결정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검사와 진단을 의료진만 할 수 있다. 검사 방식은 과정이 까다롭지만 정확도가 높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셀프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정확도를 이유로 번번이 고개를 저었다. 당연히 자가검사키트 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국내 품목허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45일이 지났지만 1차 접종을 마친 국민은 전체 인구의 3%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확진자는 연일

증가세다. 전세계적인 공급난 때문이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져서야 정부는 자가검사키트를 최대한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개발 기간은 두 달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해외에서 이미 사용 중인 제품은 국내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다는 대책도 포함

돌다리만 두드려다 발등에 불 떨어진 K방역

됐다. 자가검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태도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변화다. 업계는 "이제 와서?"란 반응이다. 그간 식약처의 관련 기준은 해외보다 훨씬 까다로워 품목허가 신청서 제출조차 할 수 없었다. 심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수출허가도 늦어지는데 갑자기 국내 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도 나온다. 당장 자가검사키트의 국내 사용 계획이 없었더라도 만일을 대비해 준비해 왔더라면 필요 시 쓸 수 있었을 것이라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흐름은 백신 도입 과정과 유사하다. 정부는 K방역의 선전에 기대어 백신 확보를 우선 순위에 놓지 않았다. 백신 도입 이후에도 국내 생산분을 포함해 물량이 충분하다던 자신감이 무색하게 2분기 접중은 차질을 빚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신중한 의사 결정은 중요하다. 하지만 적시 판단은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도 계속 헤쳐나가야 할 코로나19 시대에 한 수를 먼저 내다보는 정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헨리 제임스 명언 "미인은 얼굴에 결점이 없는 사람이나,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에 결점이 있어도 매력 유지되는 사람이다." 미국 소설가. 영어로 쓴 가장 뛰어난 소설 중의 하나로 평가받은 '어떤 부인의 초상'이 대표작. 자신의 작품 해설을 모은 '소설의 기교'는 소설 이론의 명저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843-1916.

☆ 고사성어 / 관중규표(管中窺豹) 대롱 한가운데로 표범을 엿보는다는 뜻. 좁은 시각을 이른다. 자신의 의견을 겸손하게 말할 때에도 쓴다. 진서(晉書) 왕헌지전(王獻之傳)이 원전. 동진(東晉)의 서예가 왕희지(王羲之)의 제자들이 모여 놀이를 할 때 왕희지의 아들 왕헌지가 노름을 잘 모르면서 훈수를 두자 제자들이 한 말. "이 아이는 대나무 대롱 속으로 표범을 보듯이 표범 전체는 못 보고 표범의 얼룩 반점 가운데 하나는 볼 줄 안다[此與防管中窺豹時見一斑]."

☆ 시사상식 / 마일스톤 징크스(Milestone Jinx) 추가지수가 1500, 2000, 2500 등 특정 분기점에 도달하기 직전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2000선을 앞두고 추중거리다면 투자자들은 현재를 고점이라 인식하고 차익을 실현해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고추 산초나무 '초'를 쓴 고초(苦草)에서 왔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고추는 일본과 북방 유입설로 나뉘지만 임진왜란과 광해군 시기를 전후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추측한다.

☆ 유머 / 진동벨 반호 카페에 처음 간 청년이 주문하고 진동벨을 받았다. 진동벨에 적힌 숫자를 테이블 번호로 생각한 그는 번호를 따라 자리를 찾아갔지만 다른 이가 앉아있었다. 그에게 벨을 보여주며 한 말. "여긴 제 자리입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슬아슬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발부터 여러 잡음을 내며 위태로운 모습이다. 공수처는 단순한 정부조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앞세운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런 공수처가 내외외환을 겪고 있다.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의 오랜 판과 말실수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안으로는 검사 임명 정원 미달로 체면을 구겼고, 1호 사건을 두고 수뇌부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밖으로는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검찰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 출범 초기 김 처장의 '협조'와 '협력'은 찾아볼 수 없다.

공수처는 출범 이전까지 수십 년간 부침을 겪었다. 공수처는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놓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다시 등장했지만 줄곧 야권과 검찰의 반발로 무산됐다. 문 정부 들어 공수처 설립에 드라 이브가 걸렸다. 2019년 4월 공수처 근거 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힘을 발휘해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엔 공수처장 인선이 문제였다. 애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

데스크칼럼

장효진

사회경제부장



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에 국회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위원을 선정했다. 만약 국민의힘 측이 반대하면 의결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후보 추천은 공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1년이 넘도록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못한 원인이었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남은 절차는 속전속결로 이뤄져 한 달여 뒤인 1월 말 김 처장이 임명됐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공수처였지만 앞으로의 기대는 컸다. 공수처는 대법원과 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2년간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공신력을 높일 대안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운 서울중앙지검

장에 대한 관용차 제공 등 특혜 조사 의혹은 상당한 충격을 줬다. 진위를 떠나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어야 할 공수처가 1호 사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치명상을 입었다.

이외중에 공수처는 기소권을 강제하기 위한 이른바 '유보부 사건 이첩' 법제화를 고려 중이라고 한다. '유보부 이첩'은 기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검찰(경찰)에 넘기는 것인데, 지난달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공소 여부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해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하려 했지만 이보다 효율적인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구속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의 기소권을 가지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지금이냐는 것이다.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의 진짜 힘은 '기소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공수처의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과의 첫 단추도 잘못 끼웠다. 태생부터 어지러웠던 공수처의 앞날이 갈등으로 점철될 수 있다. 상호 협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도 국민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다. 검찰개혁에 동참할 뜻이 있다면 검찰도 날을 세우기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념·진영 간 논리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은 '공정'이다. 공수처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js62@

시설

취업자 1년 만에 증가, 고용 개선된 게 아니다

3월 취업자 수가 1년 동안의 감소세에서 13개월 만에 증가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작년 3월부터 고용이 큰 폭 줄어든 데 따른 기저(基底)효과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부의 재정투입 일자리사업의 영향이 작용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2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작년 3월(-19만 5000명)부터 올해 2월(-47만 3000명)까지 12개월 연속 줄었다.

연령별 취업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인 60세 이상(40만 8000명)이 가장 많이 늘었고, 20대(13만 명), 50대(1만 3000명)도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활동 중추인 30대(-17만 명)와 40대(-8만 5000명)는 줄었다. 산업별로는 세금일자리 증가가 뚜렷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1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 4000명)에서 많이 늘었다. 반면 코로나 피해가 큰 도·소매업(-7만 1000명), 숙박·음식점업(-2만 8000명)의 감소는 여전하다. 질 좋은 제조업도 전년보다 1만 1000명 줄었다. 제조업 일자리는 작년 1월 반짝 늘어난 것 말고, 2018년 4월부터 한 번도 플러스를 보인 적이 없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산업 경쟁력의 위기를 뜻한다.

취업자 수 증가에서 기저효과나 세금 일자리를 배제하면, 여전히 고용

개선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3월 실업자가 12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000명 늘었다. 2018년 이후 동월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고, 실업률은 4.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높아졌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4.3%, 청년층 지표는 25.4%로 여전히 최악의 고용난이다.

업종이나 연령대별 취업자 지표도 고용시장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제조업 일자리, 경제활동 주력 연령대 등의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수치로 드러나는 취업자 수는 증가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지표가 좋아진다고 해도 지난해의 감소세에 이은 기저효과나 세금일자리로 인한 착시(錯視)로 봐야 한다. 실질적인 고용개선과 거리가 멀다.

고용시장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집단면역인데, 지금 우리 상황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백신 확보가 늦어졌고, 언제 모든 국민에게 백신 접종이 이뤄질지 전혀 가늠되지 않는다.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가능한 고용시장 회복 전망 또한 안갯속이다. 정부가 세금 쏟아 부어 만드는 관제(官制) 일자리로는 계속 버티기 어렵다. 정부는 보다 심각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관철은 일자리가 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지부터 고민하면 해법이 나온다.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게 최대의 문제다.

노트북을 열며

박병립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정세균 총리의 '축구 라이벌' 이란 방문

이란은 우리의 축구 라이벌 중 하나다. 지금까지 역대 전적을 보면 우리가 열위다. 대(對)이란 전적은 9승 9무 13패다. 축구 경기 장소가 이란일 때 축구 해설 전문위원들의 전망 또는 결과에서 빼놓지 않았던 말, '고산지대'. 테헤란은 해발 1200m에 있다. 이보다 낮은 고도에서 생활했던 우리 선수들에게 테헤란에서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테헤란에서 열린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지지 않았다. 이기거나 비기거나였다. 우리보다 피파(FIFA) 랭킹이 8단계 높은 이란을 상대로 우리로서는 어웨이, 이란 입장에서 홈 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이다. 피파 랭킹은 이란이 31위, 한국이 39위다.

이란 이란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기도 하다. 1977년 테헤란 시장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 삼릉로가 '테헤란로'로, 테헤란의 니아에시리가 '서울로'로 이름을 바꿨다.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서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란을 방문했다. 공식적인 방문 이유는 한국과 이란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미래 지향적 발전의 계기 마련'이다. 정 총리는 국회의장 시절인 2017년 이란에 방문한 바 있다. 정 총리 본인으로서 4년 만의 방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이란에 방문한 것은 1977년 최규하 전 총리 이후 44년 만이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이란에 국무총리의 방문이 이번이 두 번째란 사실에 정 총리도 놀라다는 반응이었다.

그런 만큼 정 총리는 이란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현지 시간 오후 3시 30분에 이란에 도착해 공항에서 이란 도로도시개발부 장관과 면담을 한 뒤 오후 6시 제1부통령과 면담을 했다. 다음 날 오전 정 총리는 이란 국회의장 면담을 한 뒤 최고 지도자 고문도 만나 한·이란 우호 증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바빠 다녔다. 이란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그들의 어려움도 듣고 격려를 하기도 했다. 상사맨 출신이며, 산업부 장관을 지냈던 그인지라 외국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이해도 높을 것이다.

정 총리는 동행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 이란 지도자들이 말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을 꼽았다. '찐친'이다. 사실 정 총리의 방문은

한국 내 묶여 있는 이란 자금을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가 핵심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입장은 확실한 것으로 느껴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한 문제) 질의가 있었고 저는 그 돈은 이란의 돈이라고 말했다"고. 맞는 말이다. 우린 이란에서 석유를 샀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국제 제재로 인해 그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관련 국가 간 이해가 다르긴 하지만 물건을 샀으면 돈을 내는 게 이치다. 국제 관계를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숙고해야 한다. 한·이란 관계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정 총리의 이번 방문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물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서가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등이 수행한 것이다. 2017년도에는 120억 달러였던 대(對)이란 수출액은 2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무역에선 우리도 손해를 보고 있는 꼴이다. 정 총리의 이란 방문이 한·이란 우호 관계 복원의 밑거름이 되길 희망해 본다. 축구도 '찐'으로 붙고 말이다. 테헤란에서 riby@

한 킷



난관 부딪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착공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위기를 맞았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문화도시연구소 등 9개 시민단체는 예산 낭비, 교통체증 심화 등을 이유로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검토 방안을 마련하라"고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굳게 닫힌 철문 틈 사이로 한 장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모습이 보인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K-그린이 혁신이다

SK이노베이션의 첫 걸음이
K-그린의 위대한 길이 되도록

친환경 윤활유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용기부터 성능까지 그 어떤 것도
지구에 해가 되지 않도록

세계를 놀라게 할 **K-그린**,
그 시작을 SK이노베이션이 함께 합니다